

2016



第三十二輯

治安論叢

警察大學 治安政策研究所

총 목 차

◆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1
◆ 민간 과학수사 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연구	47
◆ 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과 사회서비스직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145
◆ 분노·충동범죄 판별연구	269
◆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387

분노 · 충동범죄 판별연구

《研究陣》

책임연구자 : 이 장 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치안정책연구소



••• 목 차

국 문 요 약	275
Abstract	278
제1장 전체 연구개요와 추진체계	281
제1절 전체 연구개요도	281
제2절 연구 추진 체계	282
제2장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83
제3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85
제1절 분노/충동성 관련개념	285
1. 분노	285
2. 충동성	286
3. 공격성	288
4. 적대감	290
제2절 분노/충동 범죄 관련 임상 유형	292
1.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292
2. 기타 분노 충동 관련 장애	294
제3절 분노/충동 범죄	295
1. 분노/충동 범죄 발생현황	295
2. 분노/충동 범죄 관련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296
3. 분노/충동 범죄 관련 임상적 평가도구	299

제4장 세부 연구내용	303
제1절 분노/충동범죄의 촉발요인 및 측정도구에 대한 문헌 연구	303
1. 연구 목적	303
2. 연구방법 및 절차	304
3. 연구결과	305
제2절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 구성 연구	316
1. 연구 목적	316
2. 연구 대상자	317
3. 연구방법 및 절차	317
4. 연구 결과	319
제3절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K-AIQ)의 판별 타당성 연구	335
1. 연구 목적	335
2. 연구 대상자	335
3. 연구방법 및 절차	336
4. 연구 결과	337
제4절 한국판 분노/충동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 제안	350
1. 한국판 분노/충동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의 필요성	350
2. 체크리스트 문항 선별 예비 연구 결과	350
3. 향후 연구 제안	353
제5장 연구기간 및 추진일정	354
제6장 참여연구원 현황	355
참 고 문 헌	356
부 록	370

••• 표 목 차

〈표 1〉 분노/충동 범죄의 하위유형	298
〈표 2〉 분노/충동 촉발 및 억제요인	314
〈표 3〉 한국판 SIP-AEQ의 요인계수행렬	321
〈표 4〉 한국판 SIP-AEQ의 내적 합치도	323
〈표 5〉 SIP-AEQ 총점과 분노 및 공격성 관련 척도의 상관계수	325
〈표 6〉 SIP-AEQ 총점과 충동성 관련 척도의 상관계수	326
〈표 7〉 K-AIQ 단축형의 요인계수행렬	329
〈표 8〉 분노/충동성을 측정하는 SIP-AEQ 문항	331
〈표 9〉 K-AIQ 단축형의 내적 합치도	332
〈표 10〉 단축형 설문지 총점 및 하위요인과 원 척도의 상관계수	333
〈표 11〉 단축형 설문지 총점 및 하위요인과 기타 척도와의 상관계수	333
〈표 12〉 전체 집단의 연령, K-AIQ 총점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337
〈표 13〉 K-AIQ 관별 분류 결과	339
〈표 14〉 K-AIQ 단축형 총점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339
〈표 15〉 K-AIQ 단축형 분류 결과	340
〈표 16〉 K-AIQ 곡선 아래 영역	341
〈표 17〉 K-AIQ 곡선 아래 영역	343
〈표 18〉 K-AIQ 및 단축형 채점체계	344
〈표 19〉 K-AIQ 점수 기준점	344
〈표 20〉 K-AIQ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345
〈표 21〉 단축형 K-AIQ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347
〈표 22〉 대상군 분류에 따른 척도 별 평균(표준편차) 차이 비교	348
〈표 23〉 대상군 분류에 따른 척도 별 평균(표준편차) 차이 비교	349
〈표 24〉 분노충동범죄와 기타 집단 간 응답 비율비교	352

••• 그림 목 차

〈그림 1〉 전체 연구 개요도	281
〈그림 2〉 연구 추진체계	282
〈그림 3〉 우발적 범죄 발생 건수	295
〈그림 4〉 분노충동범죄의 하위유형 분류	297
〈그림 5〉 전전두 피질과 측두피질 활성화 저하	306
〈그림 6〉 공격행동 통제와 관련된 뇌영역: 전측대상회와 내측후방안와피질의 활성화	307
〈그림 7〉 go/no-go 과제, Taylor Aggression Paradigm	308
〈그림 8〉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의 정보처리 절차	310
〈그림 9〉 사회정보처리이론과 정서적 처리	311
〈그림 10〉 연구 절차 개요	317
〈그림 11〉 스크리 도표를 통한 4요인 구조 확인	320
〈그림 12〉 단축형 설문지의 스크리 도표를 통한 3요인 구조 확인	328
〈그림 13〉 연구절차	336
〈그림 14〉 전체 집단 별 K-AIQ 총점에 대한 분포	338
〈그림 15〉 K-AIQ의 ROC 곡선	341
〈그림 16〉 K-AIQ 단축형의 ROC 곡선	342
〈그림 17〉 K-AIQ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346
〈그림 18〉 K-AIQ 단축형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347
〈그림 19〉 전체 연구 추진일정	35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노/충동 관련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범죄 대응방안 수립 및 사전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충동 조절 실패 촉발요인과 이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분노/충동 범죄 관련 범죄자를 유형화하여 구별하고, 잠재적 범죄 대상군을 사전에 변별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측정도구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고, 이를 다양한 척도와 비교 분석하여 문항을 축소하였다. 이후 개발된 측정도구가 분노/충동 대상자와 일반인을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판별기준점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분노/충동 범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범죄를 유형화하고자, 다수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정리하였다. 분노/충동 범죄의 촉발 요인을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인 내적 요인의 경우 생리적 요인, 인지적 요인, 성격적 요인으로, 개인 외적 요인의 경우 가정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세분화하였다. 생리적 요인에는 특정 신경전달물질의 역기능과 전전두피질(dlPFC) 등의 이상, 인지적 요인에는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저하, 사회적 상황에서의 높은 적대적 귀인 편향이 포함되었다. 성격적 요인에는 높은 분노 민감성, 좌절에 대한 인내력 부족 등이 있었다. 한편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아동기 학대 및 외상 경험, 부족한 가정 및 사회적 지지 체계가 영향을 미쳤다. 분노/충동을 측정하는 도구들의 경우 주로 인지나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촉발요인에서 중요성을 확인한 적대적 귀인의 측정도구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노/충동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Korean Anger /Impulsivity Questionnaire, K-AIQ) 척도를 구성하여, 분노/충동 문제 경향성을 가진 범죄자 혹은 위험군을 적합하게 변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노 및 충동 문제를 보이는 이들의 특징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분노 및 충동적인 공격행동 경향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진 SIP-AEQ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Attribution and Emotional Response Questionnaire)를 번안 및 타당화 작업 후 추가하여, '적대적 귀인 편향'도 함께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판으로 번안한 SIP-AEQ 외에 총 6개의 척도(분노행동척도, 분노사고척도, 공격성 척도, Barratt 충동성 척도,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아이젠크 성격검사; 총 348문항)를 400명에게 실시 후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여 타당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노/충동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진 SIP-AEQ, 분노사고척도,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분노행동척도를 최종적인 단축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분노/충동과 관련된 요인에 포함된 문항만 선별하였다. 257명의 피험자를 추가하여 총 657명의 데이터로 분노, 충동, 적대적 귀인(분노/충동)의 3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문항에 대해 요인부하량과 신뢰도를 확인하여 90문항으로 단축하였다. 이 때 분노와 충동의 하위 요인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SIP-AEQ 문항들을 분노/충동성과 상관이 높은 것들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단축된 90문항에 대해, 최적의 판별정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다시 분석하여 총 30문항으로 최종 K-AIQ의 단축형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K-AIQ의 단축형이 적절하게 대상군과 일반인을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별분석 및 ROC 분석을 통해 판별률과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86.8%의 높은 판별률을 확인하였으며, ROC 분석 결과 척도의 총점 및 하위척도들이 모두 AUC 값 0.6이상의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대상군과 일반인을 분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설문지가 향후 분노/충동 범죄를 변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향후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국판 분노/충동 선별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선별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기반으

로 선정한 문항을 대상군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신체/언어적 학대, 사건 당시 음주 여부, 감정 조절 실패와 관련된 경험 등에 대한 문항을 향후 체크리스트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발된 한국판 분노/충동 범죄 판별 척도가 향후 한국 수사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범죄 촉발요인을 제시함에 따라 본 범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분노/충동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자 및 일반인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잠재적인 분노/충동 대상자를 변별하여 선제적 범죄 예방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제적인 사회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ger/impulsive crime that has steadily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uggesting guidelin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advanced prevention against crimes. We conducted recent literature investigation in order to explore the causes of failure leading to anger/impulsive crime and the measures of the factors. This study also aimed to develop validated measures for classifying and distinguishing anger/impulsive-related and potential criminals, and compare the validated measures to existing measures from prior studies in order to integrate appropriate items. Based on these procedures, present study provided the evidence of factors that trigger anger/impulsive crimes and the guideline for effectiv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on anger/impulsive related crimes in future.

We first carried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based on several key words to redefine anger/impulsive crime and systematically categorize the types of crime. This study investigated two major factors. Personal factor involved with physiological factor, cognitive factor, and personality factor and external factors include home and social environment. Physiological factors that trigger anger/impulsive crime are dysfunctional neurotransmitters and dlPFC (dorsallateral prefrontal cortex)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reflexive aggressive and impulsiveness. In terms of cognitive factors, it is found that diminished executive function has involved with impulsive aggression and individuals with difficulty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have expressed more anger/impulse. Personality traits consist of high sensitivity of anger, sensitiveness and lack of patience towards frustration. External factors which precipitate anger/impulsive crime are child

abuse and trauma-related experience and damaged social support network. Most existing measurements for anger/impulsivity are derived from cognition or personality related one, and the hostile attribution,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a crucial trigger factor, yet had not been introduced in domestic researches. Therefore,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we identified the necessity of the proper measurement related to anger and impulsiv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nger/Impulsivity Questionnaire (K-AIQ), we tried to discriminate the criminals or high risk individuals which has anger/impulsivity tendency. There are several self-report measures that check high anger, hostility, aggressive and impulsive charact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are significant features with anger/impulsive criminals than normal people. In particular, th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Attribution and Emotional Response Questionnaire (SIP-AEQ), which is known as effective measure of anger and impulsive aggression, is added following translation and validation process to measure 'hostile attribution' tendency. Hostile attribution bias is one of the powerful cognitive factors that trigger anger/impulsive crime and for now there are no such self-report measures in Korea. Korean-translated SIP-AEQ and seven other self-report questionnaires (Behavioral Aggression Response Questionnaire, Anger-Thought Scale, Aggression Questionnaire,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UPPS-P, Eysenck Personality Scale; Total 348 questions) were carried out by 400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follow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validity test for validation. This process confirmed the SIP-AEQ, ATS, UPPS-P and K-BARQ that include subscales of most effective measure of anger/impulsiveness, and selected as a subject of analysis to construct final Korean Version of anger/impulsiveness discriminate Scale. Subsequently, we downsized the scale by selecting questions that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nger or impulsiveness factors, and added 400 participant's data (age range: teenagers to fifties) to conduct 3 factor analysis with 657 participant's data, which include anger, impulsiveness,

and hostile attribution (anger/impulsiveness). As a result, total 90 questions with have higher factor coefficient remained. And among them, total 30 questions were showed the highest discriminate accuracy so 30 questions are confirmed as final K-AIQ.

We will examine the Korean version of anger/impulsive crime scale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n order to use for effective criminal investigation in Korea and expect to improve understanding of practitioner about anger/impulsive crime. Further, this study can give a practical contribution by suggesting a concrete counterplan for practitioners and people to take and discriminate potential anger/impulsive criminals.

Furthermore, present study evaluated a validation for discriminating criminals from normal population by conducting discrimination and ROC analysis. As results, we observed high discrimination rates of 86.8% and higher than 0.6 AUC for K-AIQ indicating great predictive and discriminate ability. Results indicated that questionnaires developed through our study can be an effective methodology for discrimination against anger/impulsive criminals. Additionally, these findings suggested the need of anger/impulsive crime discrimination checklist or index, and implicit measurements for practitioners in Korea. Preliminary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and survey research showed that childhood physical/verbal abuse trauma, alcohol related condition, experience of emotional regulation failure were necessary to Korean version of anger/impulsive crime discrimination checklist index.

제1장 전체 연구개요와 추진체계

제1절 전체 연구개요도



〈그림 1〉 전체 연구 개요도

제2절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팀은 분노 및 충동 조절 실패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대안책 수립 및 현장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학술 정리부터 실무적 적용 확인까지 체계적이고 유관적인 연구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학술적 근거에만 초점을 맞춘 협소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범죄 현상에 접근 가능한 현장과의 정기적인 연구 논의를 지속해 왔다. 문헌연구 및 이론 기반 평가 도구 개발 연구는 본 연구팀이 주체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대응책이 실제 현장에 적합한지 그 활용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분석팀이 현장 수요성에 대한 조사 및 실제 범죄자들과의 연계를 주도하는 협력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현장과 학계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인 측면의 의미를 넘어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00년도 이후부터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의 수립 없이, 자신에게 향하는 외부 자극에 의해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무동기성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의 기저에는 세상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적대감, 타인에 대한 시기 등으로 인한 분노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충동적인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분노와 같은 내면의 부정적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공격성을 충동적 공격성(반응적 공격성)이라 하는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이 부정적 정서, 특히 분노감에 기인하여 충동적인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선 언론들에서는 사건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범죄’, ‘우발적 범죄’, ‘분노조절장애 범죄’, ‘분노충동 범죄’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으며, 학계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동기성 범죄’,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다양한 용어를 통해 범죄를 파악하려 하고 있어 통일된 하나의 체계가 구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유사해 보이는 일련의 범죄들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유형화 작업 역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였기에 파악이 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충동 범죄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혼용된 여러 용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동적인 공격성의 표출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범죄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범죄자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 분류함으로써 분노/충동 범죄

전반에 걸친 촉발요인을 밝히고 유형화하여, 재범 발생 및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한 충동적인 공격성의 원인이 밝혀져 왔다. 개인 내적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 분노 민감성, 사회지능의 저하, 공감 능력 취약 등이 해당되며,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체계 상실, 사회적 고립, 교육 경험 박탈, 역기능적 가족환경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다. 또한 충동적 공격성을 촉발하는 원인과는 반대로 개인 내부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더불어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그리고 외적인 환경적 요인들도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노/충동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동적 공격성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통합되고 일치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일한 원인을 설명하는 경우는 많으나 다양한 변인에 대해 통합적으로 각각의 영향력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특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개발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충동적 공격성을 바탕으로 한 분노/충동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며,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분노/충동 범죄와 관련이 있는 촉발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노/충동범죄자를 유형화하여 분류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3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분노/충동성 관련개념

1. 분노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이지만(이근배, 조현춘, 2011), 많은 연구들에서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혼란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김교현, 2000). 분노는 학자들마다 생리적,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설명된다는 관점이 있는데, 이에 따라 분노의 각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노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Spielberger(1985)는 분노를 미미한 짜증에서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에까지 이르는 정서로 정의하였다. 분노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강한 불쾌감의 촉발이며 (안근석, 1991). 개인의 욕구가 방해될 때 일어나는 불쾌감을 제거하고자 하는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라고 정의하는 관점도 있다. 한편 분노에 대한 행동적 측면에서는, 분노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강도와 빈도가 높을 경우 파괴적인 정서 반응이 될 수 있다(Averill, 1983)는 주장과 함께, 분노란 위협이나 좌절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격성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었다(Averill, 1982). 또한 Thornburg(1982)에 따르면 분노는 타인이나 물건에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성을 표출하여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내적인 감정이기도 하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Kassinove & Sukodolsky(1995)가 분노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인지하여 정서적 각성을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Dodge(1993)는 분노란 정서를 지각하는 능력의 결핍으로 어떤 모호한 상황에 대

해 부정적 귀인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 하여, 인지적 오류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Messner, 1988) 및 자기조절의 실패와도 관련이 있어, 한 개인이 삶에서의 “좌절감”을 자주 느낀다면 이러한 정서적 경험이 분노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행동적 측면인 공격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Dollard et al., 1939). 이처럼 분노는 잘 표현된다면 인간의 적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이기도 하다(전현숙, 손정락, 2011). 역기능적인 분노는 기능적인 분노에 비해 지속적으로 분노를 강하게 경험하는 특성분노 수준이 높고 신체적, 언어적 수단으로 표출하거나 억누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Deffenbacher & McKay, 2000; DiGiuseppe, 1995; DiGiuseppe & Tafrate, 2007; Furlong & Smith 1998; Spielberger et al., 1985; Tafrate et al., 2002). Tamara와 Daniel(2004)은 이러한 역기능적인 분노를 가족, 직장, 건강, 법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노라는 한 개인의 내적 감정 상태가 부적절하고 역기능적으로 발현되는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충동범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충동성

충동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아직까지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납득할 만한 하나의 일치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개념이다. 대개 사전 숙고나 의식적인 판단 없이 행동을 전환하는 것(Hinslie & Shatzky, 1940) 또는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개인들에 비해 사전 숙고를 덜 하고 행동하는 것(Smith, 1952) 등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숙고하지 않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점차 그 하위 특질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Eysenck와 Eysenck(1977)는 충동성이 위험 추구, 계획성 부족, 빠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Patton 등(1995)은 충동성을 세 가지 요소로 세분하여 1) 순간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운동적 활성화), 2) 현재의 과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 (주의), 3) 계획을 세우거나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음

(계획성 부족) 으로 주장하였다(Moeller et al., 2001). 이와 더불어 오늘날 충동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BIS-11의 원 저자인 Barratt (1994)은 충동성을 생각한 이후 행동하는 관념운동(ideomotor) 부족,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주의와 계획성 부족,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고 행동하는 대처 안정성(coping stability)의 부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충동성의 개념은 심리학의 각 연구 영역의 관점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성격심리학의 영역에서 충동성은 단지 하나의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의 영역에서는 여러 행동장애 및 정신질환의 증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성격특질로서의 충동성은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행동하는 것(Harriman, 1947)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주저하는 것 없이 일을 빨리 해치우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심하는 것,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자신의 행동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Buss & Plomin, 1975)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Eysenck와 Eysenck(1977)는 충동적인 사람은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위협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정신병리학의 영역에서 충동성은 어떤 개인에게서든 모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지만, 특정 정신장애를 지닌 이들에게서 더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여긴다(Moeller et al., 2001). 이러한 장애들은 행동의 억제 문제와 관련이 있고(Gray, 1995; Rachlin, 2000), 앞서 언급했던 더 큰 운동적 활성화와 주의 부족, 계획성 부족의 특징을 지닌 것들을 포함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의 여러 성격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 양극성 장애, ADHD, 품행장애 등이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인지심리학 분야 중 충동성을 인지 및 운동 기능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밝히고자 한 학자들은 충동적인 사람의 특징을 운동 능력을 자제할 수 없고(Maccoby et al., 1965),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Kagan et al., 1964), 미로학습에서도 장애를 보인다고(Porteus, 1959) 기술하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충동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인지적 특징을 밝힌 Barratt과 Patton(1983)의 연구에 의하면, 충동성 수준이 높

은 피험자는 인지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려우며, 지각-운동 과제에서도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처벌에 대한 둔감성과 현재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수행 중인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3. 공격성

공격성은 가해자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이다(Bushman & Anderson 2001, Baron & Richardson 1994, Berkowitz 1993, Geen 2001). Anderson과 Bushman(2002)에 의하면 공격성은 억압과 분노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써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든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행위자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이 행위를 공격 행동으로 보는 입장이다(Buss, 1961; Dollard et al., 1939; Eron, 1980).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격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의도 없이 발생한 우발적 사고도 공격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격성을 정의할 때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입장이다(곽금주, 1992; 김명숙, 1989; 이경희, 1998; 최인숙, 1989; Aronson, 1980; Berkowitz, 1974). 이 정의는 매우 타당해 보이지만, 의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격성을 정의하는 세 번째 유형은 절충적인 입장으로, 공격 행위의 결과와 행위자의 상해 의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Bandura & Walters, 1963).

공격적인 행동 경향성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공격적 행동과 공격하는 사람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특징을 기반으로 두 가지의 하위유형이 최근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Weinshenker & Siegel, 2002). 첫 번째 하위유형으로는 통제력 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반응적이고, 정서적이며, 적대적, 충동적인 공격성이 해당한다. 두 번째 하위유형으로는 계획된 폭력적 반응으로써 도구적 공격성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 반응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은 충동적 공격성(impulsive aggression)이라고도 하며, 좌절-공격성 모델(frustration-aggression model; Berkowitz, 1989)에 그 이론적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지각된 위협이나 좌절, 혹은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써의 방어적인 분노 반응을 의미하며(Ford et al., 2010), 정서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행동 통제 및 조절 능력 상실로부터 야기되는 공격적 반응을 의미하기도 한다(Barratt, 1991; Stanford et al., 2003). 흔히 반응적 공격성은 격한 분노, 위협적인 적대적 공격 행위, 사소한 위협에 대한 방어적 자세 혹은 강한 자율신경계 활성화 반응 등으로 불리고(Lake, Stanford, & Patton, 2014), 세로토닌 수준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도 밝혀져 있다(Melzer & Arora, 1988). 또한 개인의 빈약한 정서조절 능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분노 표현, 짜증, 보복적인 적대감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발달 초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이 있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혼란된 가정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고, 또래로부터의 거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ing, 1999).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통제적이고 처벌적인 경우가 많아 양육자의 온정적이지 못한 훈육이 특징인 것으로 밝혀졌다(Bowen & Vitaro, 1998). 반응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 억제의 적절성과 주의력, 만족지연 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정보처리기에 있어서도 특히 초기 단계인 부호화(encoding)와 해석단계, 반응 생성 단계에서 왜곡 및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dge & Coie, 1998; Dodge et al., 1990).

나. 도구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은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 1977)에서 말하는 외적인 강화물에 의해 통제되며,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의도적이고 강압적 행동을 의미한다(Ford et al., 2010). 반응적 공격성과는 달리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냉혹하며(cold-blooded), 제한된 자율신경계 활성화 반응 등으로 불리고, 덜 정서적인 반면 좀 더 보상 기대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배적, 강압적 행동 등과도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Dodge et al., 1997).

도구적 공격성을 가진 범죄군의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이 반응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에 비해 높고(Antonius et al., 2013; Cornell et al., 1996), 치료적 접근에도 상대적으로 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항정신성 약물 치료에서도 반응적 공격성에 비해 낮은 효과를 보였고(Swanson et al., 2008), 분노 조절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낮은 효과성이 검증되었다(Walters et al., 2007). 그러나 인지적 재구조화 작업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을 가진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반응적 공격성을 위한 접근과는 달리 인지적 해결 과정이 중요함을 확인했다(Walters et al., 2007).

4. 적대감

적대감은 타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여기면서 타인과 세상을 부정적,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정의된다(Spielberger et al., 1983).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부정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분노감을 적절하게 분출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Buss & Perry, 1992). 특히 Spielberger 등(1983)은 적대감이 보통 분노감정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상이나 사람을 향한 공격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태도를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적대감은 분노가 누그러지고 난 뒤 남아 있는 부정적 감정들인 분개, 원한, 복수심 등으로 구성되며, 그 유발 원인이 되풀이되지 않음에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적대감은 분노 및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Spielberger 등(1985)이나 Smith (1992)는 분노와 적대감 및 공격성을 각기 정서와 인지(혹은 태도) 및 행동 성분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세 성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기는 하지만 분노는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 그 강도와 지속성 및 빈도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반면, 적대감은 외부 자극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태도 성분으로 간주된다. Spielberger 등(1985)은 분노와 적대감 및 공격의 밀접한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 AHA 증후군(anger-hostility-aggression syndrome)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Barefoot(1992)과 Williams와 Williams(1993) 등은 적대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분노와 공격성을 적대감의 하위 요인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분노는 적대감의 정서적 성분으로, 냉소주의(cynicism)를 적대감의 인지적 성분으로, 그리고 공격을 적대감의 행동적 성분으로 간주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분노와 적대감 및 공격성의 개념적 구분에서 Spielberger 등(1985)의 입장을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적대감의 개인차에 대해 살펴보면, 적대감은 아동기 때 부모의 양육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한상훈, 강석기, 2002), 적대감이 높을 경우 더 큰 특성분노를 보이고, 부정적인 관계 형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bone과 Contrada(2002)는 높은 수준의 적대감이 있는 경우, 낮은 수준의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운 타인에게조차 높은 분노 점수를 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적대감은 개인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심장 질환 및 질병과 높은 관련성이 있고, 사망률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refoot et al., 1983).

특히 이러한 적대감의 발달은 아동기에 형성된 인지도식(cognitive schema)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Calvete & Orue, 2010). Dodge(1986)는 사회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적대적 귀인이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분노감이나 공격성 반응인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 등 정서적 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emerise & Arsenio, 2000). 특히 Calvete과 Orue(2010)는 아동기에 형성된 인지도식의 유형이 향후 공격적인 행동 표출 가능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Huesman, 1988; Huesmann & Huerra, 1997)를 바탕으로 사회정보처리이론이 인지와 공격성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회정보처리이론은 그 자체로 분노/충동범죄의 인지적 측면인 적대적 귀인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인 분노감과 행동적 측면인 반응적 공격성까지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분노/충동 범죄 관련 임상 유형

1.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disruptive, impulse-control and conduct disorder)는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문제를 포함한 장애군들을 일컫는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 상의 분류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범주에 포함되는 장애들은 공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준을 위반하거나 권위자와의 현저한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래는 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장애들의 목록이다.

가. 간헐적 폭발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ED)

전구기 없이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행동폭발을 보이는 장애로, 언어적 공격성(분노발작이나 장황한 비난) 또는 재산,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성이 3개월 동안 평균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나 파괴 또는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는 폭발적 행동을 12개월 이내 3회 이상 보이는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이들이 보이는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행동폭발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이나 분노로 유발된 행동이며, 특정 대상에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 기준으로 간헐적 폭발장애의 1년 유병률은 약 2.7%로, 30-40세 이하의 연령층과 고등학교 교육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간헐적 폭발장애는 흔히 사회적 (예, 친구 및 친척의 상실), 직업적 (예, 좌천이나 실직), 재정적 (예, 기물파손), 법적 문제 (예, 타인이나 소유물에 대한 공격적 행동 결과로 인한 민사소송,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발)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나.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

분노/과민한 기분, 논쟁적/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 특성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전형적으로 행동 문제와 더불어 분노/과민한 기분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유병률은 1~11%이며,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적

대적 반항장애가 발달 단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부모, 교사, 또래 및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빈번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적응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다.品行장애(Conduct Disorder; CD)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행동은 크게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주는 공격행동, 재산 손실이나 파괴를 야기하는 비공격적 행동,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을 포함한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지난 12개월 동안 존재해야 하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행동이 지난 6개월 동안 존재하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유병률은 연간 2~10% 범위로 추정되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증가하고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品行장애는 정확이나 퇴학, 직장 적응 문제, 법적인 문제, 사고나 싸움으로 인한 상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 행동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라.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PD)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앞선 파괴적, 충동조절 및品行장애에도 포함되나, 성격장애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구분되는 차이점을 지닌다. 성격장애를 지닌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현저하게 편향된 행동 특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이렇듯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지속적인 행동 양상을 아동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특징으로,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5세 이전에品行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병률은 0.2~3.3%로 주로 남성에게서 흔하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고 형사처벌과 관련된 행위를 자주 반복한다.

2. 기타 분노 충동 관련 장애

가. 외상 후 격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외상 후 격분장애는 2003년 독일 정신의학자 Michael Linden에 의해 적응장애의 하위분류로 제안된 것으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상에서 정식으로 분류된 장애는 아니나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닌 예외적인 중요한 사건(예, 직장에서 갈등, 실직, 이혼)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핵심적인 원인 메커니즘은 불안이 아니라 기본신념에 대한 위반으로, 깊게 뿌리박힌 신념에 대한 위협이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격분과 부당한 느낌을 받게 한다. 아직까지 유병률 및 성차와 연령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외상 후 격분장애의 특징적 증상은 침습적인 기억의 반복이기 때문에, 정신적 안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행과 역할의 손상을 야기한다.

나. 조현병(Schizophrenia)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각, 혹은 와해된 언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극도로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성 행동, 음성증상을 포함한 최소 두 개의 증상들이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존재해야 한다. 유병률은 대략 0.3~0.7% 정도이며, 망상이나 환각 등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만성적이고 고도로 지속되는 과민성이 주된 특징으로, 두 가지 두드러진 임상적 징후를 보인다. 첫 번째는 빈번한 분노발작이며, 전형적으로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언어적 또는 행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두 번째 징후는 분노발작 사이의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과민한, 또는 화가 난 기분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본 장애의 유병률은 명확하지 않으며, 소아에게서 흔히 발생하고 남성과 학령기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나치게 과민한 상태가 지속되는 특징은 아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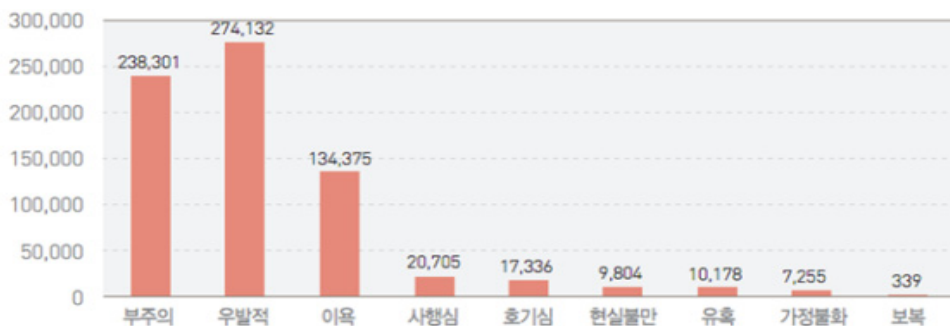
가족 및 또래와의 관계와 학교에서의 수행 능력 저하와 연관되어 있으며, 위험한 행동,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 고도의 공격성이 흔하게 나타난다.

제3절 분노/충동 범죄

1. 분노/충동 범죄 발생현황

최근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분노 및 충동 범죄의 사회문제가 기승하고 있다. 2003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한 개인의 내적 분노가 충동적으로 분출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피해를 입히는 다양한 사례 또한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총 1,741,302명 중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274,131로 전체 비율 중 15.7%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09년 이후 해마다 분노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경찰백서, 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에서는 충동조절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2009년 3720명에서 2013년 4934명으로 최근 5년간 30%이상 늘었으며, 지난 4월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50%가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1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으로 분노 및 충동조절과 관련된 장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분노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우발적 범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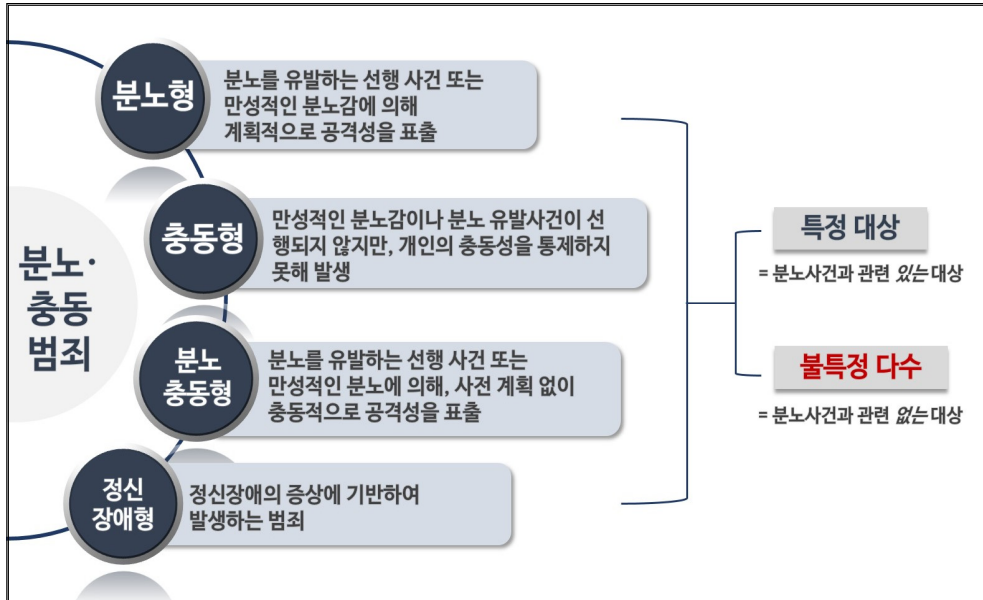
2. 분노/충동 범죄 관련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현재 분노/충동범죄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주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여 연구되어 온 것이 많다(윤정숙 등, 2013; 박지선, 최낙범, 2013; 이수정 등, 2013; 고선영, 2012; 김진혁, 2012; 김상균, 2010; 정연대, 이운호, 2013).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펴낸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를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묻지마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한 분석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윤정숙(2014)은 2012년도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사건을 분석하여 주된 범죄 동기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장애형으로 분류하였다. 불만 및 분노형은 자신의 처지 불만과 그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하는 경우였으며 정신장애형은 음주, 정신장애, 약물 복용 및 분드흡입 등과 같은 이성적 상태가 아닌 환각, 망상, 환상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분류하였다.

국외의 묻지마 범죄 사례 역시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장애형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나, 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규모가 대량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내의 범죄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처지 및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약물이나 음주에 따른 정신장애와 같이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보았다(윤정숙, 2014). 또한 외국 언론에서는 국내의 ‘묻지마 범죄’ 또는 ‘무동기성 범죄’와 비슷한 맥락에서 motiveless crim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불명확한(nonspecific)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선영, 2012).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motiveless crime’, ‘hate crime’, ‘random violence’와 같은 외국의 범죄개념을 인용하여 이를 국내 묻지마 범죄 연구에 적용하기도 하였다(정연대, 이운호, 2013).

이처럼 국내외 연구는 주로 ‘묻지마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념적 정의 및 범죄 사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묻지마 범죄’에 관한 정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노/충동범죄에 대한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범행동기가 상식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대상이 불특정하

며, 타인을 해치려는 적대적인 의도로 저지른 범죄로 주로 정의되지만(박지선, 최낙범, 2013), 묻지마 범행 당시 분노를 느낀 가해자가 약 7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노 및 충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았다(형사정책연구원, 2014).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불특정인으로서 제한되지 않고 이웃 사람, 형제, 20대 여성 등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분노/충동범죄의 대부분은 범행 대상이 특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묻지마 범죄의 유형인 정신장애형처럼 환각,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증상에 따른 범죄도 포함되지만 대개 부정적 귀인에 따른 순간적인 분노조절실패로 인해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분노/충동 범죄와 소위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범행 대상에 있다고 보고, 분노/충동 범죄는 특정 대상과 불특정 대상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대신 분노형, 충동형, 분노충동형, 정신장애형의 4가지 하위 범주로의 분류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한다 (그림 4).



〈그림 4〉 분노충동범죄의 하위유형 분류

이와 같은 하위유형은 범행에 대한 분노 유발 선행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개인의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범행이 그러한 분노사건 및 충동성을 유발한 특정 대상에게 발생 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 하였는지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때 모든 유형에 대하여 그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금까지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묻지마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하위유형과 범죄 유형을 연결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표 1).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하위유형을 제대로 분류해 낼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부재하므로, 정확한 분류 및 유형화 확인을 위해서 분노와 충동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분노/충동 범죄의 촉발 요인을 파악하고, 범죄의 하위유형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측정도구 구성 및 변별 기준점 확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분노/충동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및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분노/충동 범죄의 하위유형

	특정대상	불특정 다수	
분노형	증오범죄	'묻지마 범죄'	
충동형	충동적 절도 방화 성범죄(면식)	성범죄 (비면식)	'묻지마 범죄'
		호기심에 기인한 청소년 범죄	
분노 충동형	우발적 범죄 표출적 범죄	'묻지마 범죄'	
정신 장애형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장애/외상 후 격분장애/조현병/ 반사회성 성격장애)		

3. 분노/충동 범죄 관련 임상적 평가도구

가.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는 Linden 등(2003)의 분노행동척도(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BARQ)를 조현춘과 이근배(2006)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으로, 직접 분노표출(6문항), 자기표현(6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6문항), 반추(5문항), 분산(5문항), 회피(3문항)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분노 상황에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분노 표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며, '좌절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러한 행동을 자주 하는지'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설문지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나.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는 Buss &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본 척도는 특질분노를 분노감, 공격성, 적대감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는 선행연구(Spielberger et al., 1985)를 수용하여,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7문항), 적대감(8문항)을 측정하는 4개의 하위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문장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다. 분노사고척도

분노사고척도는 분노를 인지적으로 설명하려는 세 가지 이론(Lazarus, 1991; 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을 바탕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5)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분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평가와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분노 경험이 일어나기 전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차적 평가와 상황에 대한 해석인 이차적 평가를 구분하여, 일차적 분노사고척도와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적 분노사고척도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11문항)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9문항)의 2요인 구조이며, 이차적 분노사고척도는 타인비난 및 보복(19문항), 무력감(7문항),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8문항)의 3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척도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본 문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본 생각이 떠오르는지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라.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BIS-II)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는 Barratt(1959)이 개발한 Barratt Impulsiveness Scale 을 이현수(1992)가 국내에 번안한 것으로, 인지 충동성(6문항), 운동 충동성(8문항), 무계획 충동성(9문항)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충동성을 나타내는 제시된 내용과 본인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74로 양호한 편이었다.

마.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는 Whiteside와 Lynam(2001)이 개발한 UPPS 에, Cyder 등(2007)이 새로운 하나의 요인을 추가하여 완성된 총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충동성 측정 척도이다. 한국판 UPPS-P는 Cyder의 척도를 임선영과 이영호(2014)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부정적 긴급성(12문항), 긍정적 긴급성(14문항), 계획성 부족(11문항), 지속성 부족(10문항), 감각추구(12문항)이 포함되며, 이는 각각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5가지의 성격 경로(personality facets)를 나타낸다.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양호하였으며, 특히 척도 전체 신뢰도의 경우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 한국판 특질-상위기분척도(TMMS)

한국판 특질-상위기분척도(TMMS)는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Trait Meta-Mood

Scale을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으로,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감시하고, 여러 감정들의 종류를 변별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줄 아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0). 본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 개선의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양호한 내적 합치도로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도 전체의 재검사 신뢰도는 .94로 매우 양호하였다.

사. 아이젠크 성격검사 II부, III부(EPS-II, III)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Korean Eysenk Personality Scale: K-EPS)는 이현수 등(1997)에 의해 표준화되었으며, 총 III부로 이루어져 있다. I부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E),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허위성(lie; L)의 네 가지 주요 성격 차원적 요인의 특징과 추가적으로 중독성(addiction)과 범죄성(criminality)을 더해 총 6 가지 성격 특성을 측정하며,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부는 I부의 단축형으로 총 48문항이며, III부는 충동성 검사인 IVE-P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충동성(impulsiveness: IMP), 모험성(venturesomeness: VEN), 감정이입(empathy: EMP)의 3가지 성격 특성을 측정한다. EPS-I의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병적 경향성은 비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공격성, 비동조성, 불일치성, 충동성과 관계가 있으며, 외-내향성은 사교성, 사회적 주도성 및 적극성을 측정하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을 평가한다. 허위성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경향성과 솔직성을 측정하고, 중독성은 음식 또는 약물의 비정상적 섭취경향을, 범죄성은 개인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반사회성 등을 측정하여 비행자와 상습적 범행자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척도이다. EPS-III의 경우, 충동성은 계획되지 않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평가하고, 모험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측정하며,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쉽게 동화되는 지를 측정할 수 있다. 내적 합치도는 .645~.870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분노 및 충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들이

국내에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노와 충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부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분노/충동범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 여러 척도를 따로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설문지들 중 특히 분노를 측정하는 설문지들의 경우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측면에서의 적대감 등을 측정하기는 다소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분노사고척도가 분노 상황에서의 자동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차적 척도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변별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차적 척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분노/충동범죄자들이 단순 분노감이 많거나 충동적인 일반인들과는 구분되는 차이점은, 분노감을 느낄 때 그것을 충동적인 공격행동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분노/충동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척도는 분노와 충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 상황에서 그것이 충동적인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성향이 있는지까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측정이 가능한 도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사회정보처리 이론(social-processing theory)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론으로, 이론에 따르면 공격성의 기전을 상황에 대한 적대적 귀인(hostile attribution)에 근거하여 분노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기반으로 Coccaro 등(2009)이 개발한 사회정보처리-귀인 및 정서반응 질문지(Social-Information processing-Attribution and Emotional response Questionnaire; SIP-AEQ)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적대적 귀인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새롭게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측정도구들이 지닌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분노/충동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 촉발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4장 세부 연구내용

제1절 분노/충동범죄의 촉발요인 및 측정도구에 대한 문헌 연구

1. 연구 목적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분노/충동 범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분노/충동범죄자를 유형화하며 이들의 특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노/충동범죄자들이 지닌 특성과, 해당 범죄의 촉발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묻지마 범죄’의 사례를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분노/충동범죄와 그 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노/충동 범죄의 촉발요인을 개인이 지닌 내적인 특성인 ‘개인 내적 요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적 특징인 ‘개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중 개인 내적 요인의 경우 호르몬, 뇌 구조와 같은 생리적 요인과 타고난 성격적 특질, 또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한편 개인 외적 요인은 아동기 양육환경, 사회경제적 상태 또는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키워드를 통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식과 도구들에 대해, 특히 국외에서는 주로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측정도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분노/충동 범죄자 평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분노/충동 범죄와 관련된 촉발 및 억제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료 수집일인 2015년 현재까지의 국내 및 국외 논문을 탐색하였다. 국내 논문 검색은 RISS, DBpia를 통해 학위 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외 논문은 SCOPUS, Web of Science를 통해 검색하였다.

키워드는 “분노”, “충동성”, “공격성”, “적대감”, “폭력성”, “범죄”, “비행”, “반응적 공격성”, “충동적 공격성”, “anger”, “impulsivity”, “crime”, “reactive aggression”, “impulsive aggression”라는 주제어를 검색하여 나온 자료 중 분노/충동에 따른 공격성 및 범죄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으며, 검색항목은 전체, 논문명(Full Title), 저자(Author), 주제어(Keyword), 초록(Abstract)이었다. 연구물들의 제목과 초록을 참고로 하여 DB간 중복된 연구물과 동일 DB내에서의 중복된 연구를 삭제하고, 주제나 연도 또는 연구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물을 삭제한 결과 총 80개의 국내 연구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 중 학회지 논문이 20건, 학위 논문이 6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이 아동과 초기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었고, 성인 사이코 패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 성인 뇌 연구 1편만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 중에서 3편 정도는 소년원에 수감되었거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내적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인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대해 제시한 논문이 총 10편, 귀인 관련 논문 총 9편, 적대감 1편, 의사결정 1편, 인지 기능 관련 총 19편, 통제와 관련된 연구는 총 24편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요인인 정서 36편, 분노 관련 총 19편, 정서조절 총 19편, 자아존중감 총 10편으로 나누어졌으며, 성격적 요인으로 공감능력과의 관계 연구가 총 9편으로 정리되었고, 외부 환경적 요인 중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와의 애착을 살펴본 논문은 총 5편, 학대 총 5편, 일반 환경적 요인 중 스트레스 관련 논문이 총 6편이었다.

국외 논문에서는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총 1,11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중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논문이 총 311편으로, 세부적으로는 적대감 총 132편, 귀인 총 105편, 의사결정 총 73편, 통제 총 206편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서가 총 417편, 분노 350편, 정서조절 213편, 자아존중감 95편이었고, 외부 환경적 요인 중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와의 애착이 54편, 가정학대가 159편, 스트레스 관련이 392편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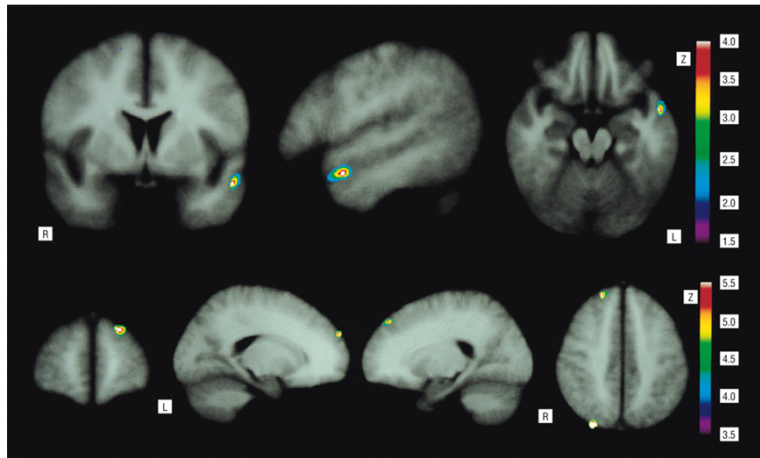
가. 개인 내적 요인

1) 생리적 요인

분노 및 충동 조절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개인 내적 요인 중 신경전달 물질과 뇌 영역의 역기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내부의 신경전달물질의 역기능에 따라 충동적인 공격성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Coccaro와 Siever (2002)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세로토닌 운반체(5-HTT), 카테콜아민(catecholamine),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코르티솔(cortisol), 바소프레신(vasopressin), 오피오이드(opioid),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모노아민옥시다아제(monoamine oxidase)와 같은 신경전달물질들이 충동적인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충동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교도소 수감자,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은 자살 경향 성격장애환자, 남성 유도선수, 알코올 사용자,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 대학생, 임상적 세포손상자 등 다양한 집단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을 검사하여 해당 신경전달물질의 농도 및 단백질 이상 등을 파악하거나, 혈액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호르몬과 유전자 형질을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충동적인 공격성에 신경전달물질의 역기능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MAO-A 유전자 타입이 남성 청소년의 범죄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로 밝혀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Dorfman et al., 2014), 글루코오스(glucose) 수치가 낮을수록 자기 통제 능력이 결여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Bushman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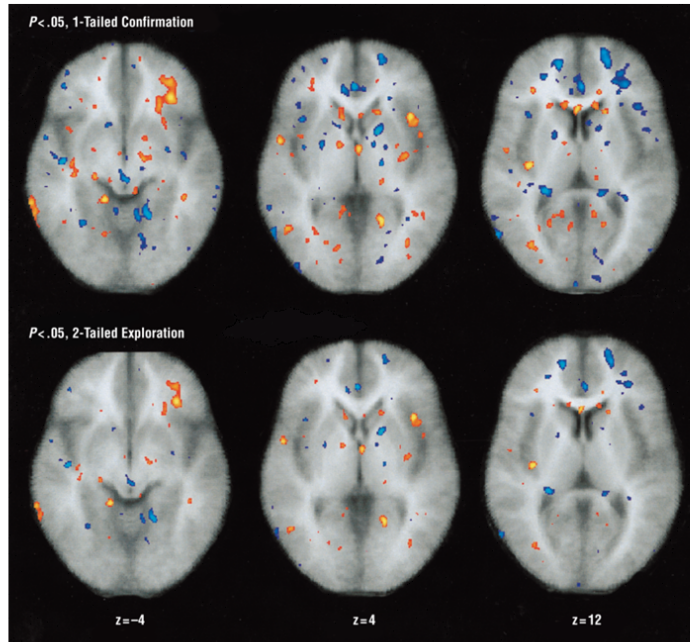
이러한 신경약물학적(neuropsychopharmacology)이고 분자유전학적인(molecular genetics)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뇌신경학적인 연구에서도 분노 및 충동의 생리적 기전을 밝

히고자 한 바 있다. 먼저 EEG (electroencephalogram)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뇌파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P300 뇌파의 진폭이 충동성과 분노가 높은 교도소 재소자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Barratt, Stanford, & Kent et al., 1997). 또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간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측두피질(temporal cortex), 변연계(limbic system)의 피질이 공격성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ccaro et al., 2002; Hirono et al., 2000) (그림 5).



〈그림 5〉 전전두 피질과 측두피질 활성화 저하(Hirono et al., 2000)

한편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통해 분노 및 충동과 관련이 있는 뇌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도 있다. New 등 (2002)의 연구에 의하면 DSM-IV진단으로 충동적 공격성향이 있는 환자들은 전측대상회와 내측후방 안와피질 영역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그림 6), Patrick(2008)은 적대감, 신체적 공격성, 재산 파괴 등과 같은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들이 전전두피질과 좌측 측두엽에서 혈류량의 감소를 보인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밖에도 좌측 배외측전전두피질(dIPFC) 활성화 수준이 억제 능력, 충동성 조절 및 반응적 공격성과 상관성이 있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녀 편도체의 반응 이상과도 관련이 높음이 확인되었다(Perach-Barzilay et a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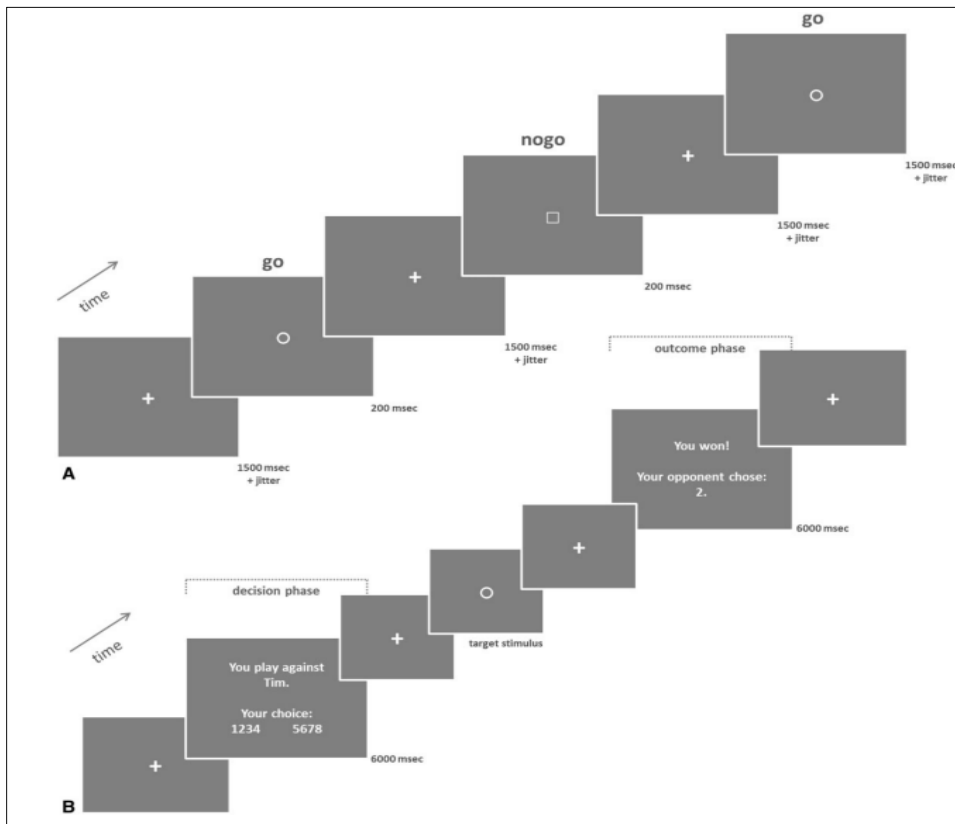
〈그림 6〉 공격행동 통제와 관련된 뇌영역: 전측대상회와 내측후방안와피질의 활성화 (New et al., 2002)

2) 인지적 요인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은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또는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집행기능에는 선택적 주의, 반응 억제, 계획 및 조직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및 분노, 충동성이 높고 공격행동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집행기능과 관련된 여러 특징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범죄자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자 및 비범죄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범죄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폭력 관련 자극에 더욱 강한 주의편향을 나타내는가 하면(Domes et al., 2013), 일반인과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정서 표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범죄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정서 표현을 더 부정확하게 인식하며, 긍정적인 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더 강한 주의편향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Kret & de Gelder, 2013). 이들 연구에서는 DSM-IV 기준 또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을 평가하였고, 정서적 스트룹 과제 (Emotional Stroop Task)와 정서적 몸짓 사진을 평가하게 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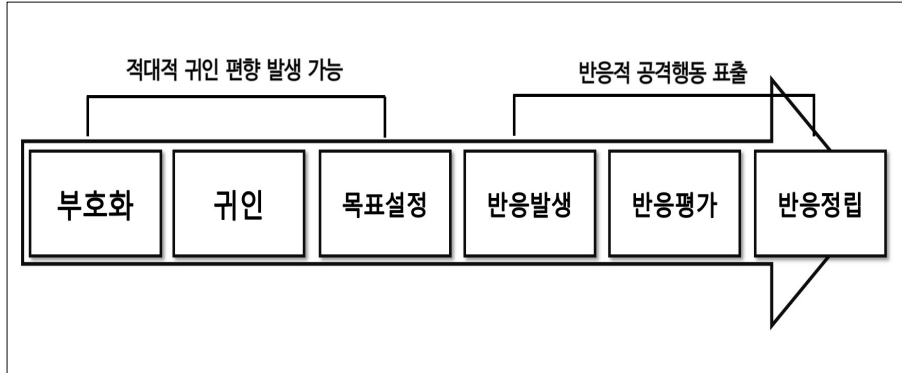


〈그림 7〉 go/no-go 과제(위), Taylor Aggression Paradigm(아래)
(Dambacher et al., 2014)

또한 Dickman 충동성 검사(Dickman's Impulsivity Inventory), 아이젠크 충동성 검사(Eysenck's Impulsivity Inventory)와 같은 설문지로 측정된 충동성 및 실험실에서 의 go/no-go 과제(그림 7) 수행을 통해 측정된 반응 억제 능력, 그리고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통해 측정된 공격성으로 반응 억제 능력의 결합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선행연구(Vigil-Colet & Codorniu-Raga, 2004)에 따르면, 억제 통제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역기능적 충동성이 높았으며, 충동적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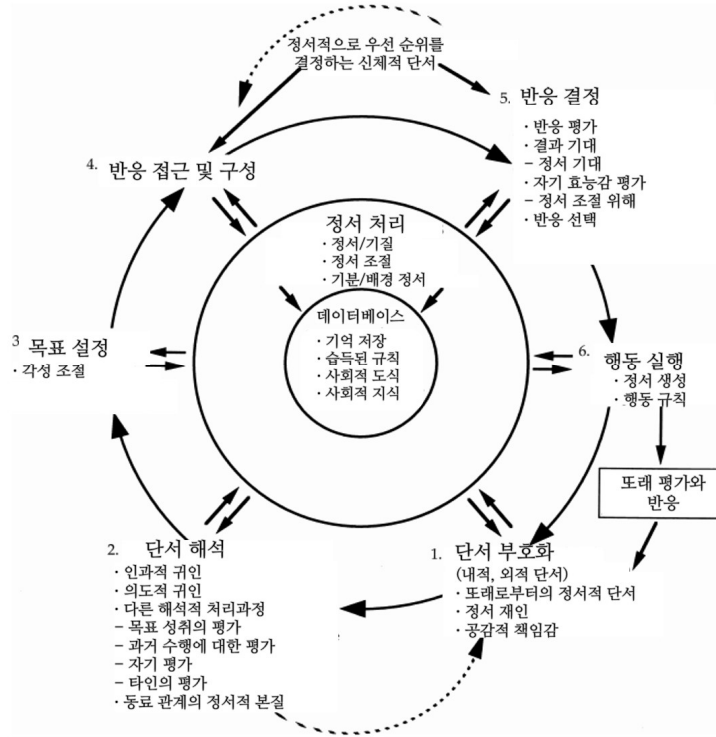
격성의 표출과도 더 높은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높은 충동성 수준과 집행기능의 인지적 결함이 충동적인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반응 억제 능력과 분노 수준과의 관계도 연구된 바 있는데,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응 억제에 실패하는 탈억제(disinhibition)와 관련된 수행 오류를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LeMarquand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을 사회적 행동 척도(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Tremblay et al., 1991)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공격성으로 측정하였으며, 탈억제 수준은 마찬가지로 go/no-go 과제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행기능의 수준이 공격적인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행기능 수준을 Spatial Conditional Association Learning Task (SCALT; Petrides, 1985)와 Self-Ordered Pointing task (SOP; Milner et al., 1985)를 통해 측정하고, 공격성 수준을 실험실 상황에서의 Taylor Aggression Paradigm (TAP; Taylor, 1967)을 통해 측정한 연구에서는, 집행기능 수준이 낮은 경우 공격성 조절에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Hoaken et al., 2003), 집행기능의 결함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메타 연구 결과도 있었다(Morgan & Lilienfeld, 2000).

이처럼 분노 및 충동 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행 기능의 결함은, 사회적인 정보 처리와 같은 상위 인지 기능의 매개를 통해 분노 표출로 연결된다(Hoaken et al., 2003). 다시 말해, 집행기능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적인 정보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아동의 공격성 발달을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한 사회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Dodge, 1987)과도 연관된다. 사회정보처리이론은 개인의 내적인 사회적 인지가 표면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 반응적 공격행동의 표출을 정보 처리의 첫 단계인 부호화와 귀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편향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Dodge, 1990)(그림 8).



〈그림 8〉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의 정보처리 절차

이에 따르면 공격성을 표출하는 개인은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환경적 단서나 상대방의 의도를 오지각, 즉 잘못 부호화하여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편향(hostile attribution bias)을 보이는 정보처리의 특징을 나타낸다. Lemerise와 Arsenio (2000)에 따르면, 이러한 적대적 귀인이 부정적 정서, 특히 분노감 등을 처리하는 정서적 처리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충동적인 반응적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한다(그림 9). 따라서 분노/충동 범죄의 인지적 촉발요인 중 하나로 적대적 귀인 편향을 꼽을 수 있겠다. Coccaro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 및 충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환경적 단서, 이를테면 타인의 얼굴 표정과 같은 정서 정보를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오해석하거나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인지가 결국에는 공격성을 이끌게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림 9〉 사회정보처리이론과 정서적 처리 (Lemerise & Arsenio, 2000)

3) 성격적 요인

비행 및 범죄행동을 하는 개인들과 분노 및 충동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분노 민감성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공격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비행집단의 경우 일반 집단에서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도 분노가 가라앉기보다 지속적으로 강렬하고 일반화된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의 경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혹 자극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cCann & Biaggio, 1989).

성격적으로 까다롭거나 요구사항이 많은 예민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도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는데 실패하는 경향이 많고, 충동적으로 행동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높은 보상 추구력이 있을

경우에도 순간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쉽게 느낄 수 있다(Hecht & Latzman, 2015). 이러한 성격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PCL (Psychopathy Checklist), 다차원적 성격 질문지(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MPQ; Tellegen, 1982),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Scale, EPS; Eysenck & Eysenck, 1975),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Morey, 1991, 2007) 프로파일과 같이 충동적인 공격성과 관련 있는 다양한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설문지들이 사용되었다.

나. 개인 외적 요인

개인 외적 요인은 크게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 역시 다수 존재하는데, 주로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및 다양한 설문지, 추적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아동기 양육환경 등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아동기 학대 및 트라우마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 성인기에도 타인이 분노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표현을 보이는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각성, 공포, 분노를 보이거나 정서조절의 곤란과 관련된 어려움을 보고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auchan & Cicchetti, 2002; Rathert et al., 2011; Shields & Cicchetti, 1998). 즉, 생애 초기부터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거나 자주 목격하게 되는 환경에서 성장했을 경우 적대적인 사회적 단서를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모호한 자극이라 할지라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Shields & Cicchetti, 1998).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극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모방 학습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il & Price, 2009; Teisl & Cicchetti, 2008). 비슷한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애착 관계, 가족 간 표현이나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Morris, Sheffield et al., 2007).

한편 사회적 지지 체계 역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분노 및 충동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성인기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와 조규관(2010)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분노 억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대인관계 지지 평가 질문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Spielberger, 1999)를 통해 분노 억제를 측정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박현수 등, 2010). 앞서 언급했던 아동기 학대 경험이나 트라우마 등 외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폭력적인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해준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Maschi, 2006). 이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경험으로 인한 폭력적인 규범 위반 행위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ISEL 외에도, 추가적으로 아동기 트라우마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 등을 함께 사용하여 해당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높은, 분노 및 충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 폭력적이고 희생적인 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Johnson et al., 2002). 이와 유사하게, 폭력적 하위문화의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분노의 표출과 폭력 행동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폭력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Wolfgang & Ferracuti, 1967; Curtis, 1975). 특히 여기에는 가정에서의 폭력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학교환경에서의 폭력 문제도 청소년들의 분노조절 및 폭력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03;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와 분노를 살펴본 연구에서, 그들을 폭력으로 이끄는 분노는 기질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외로움, 불공정한 성인들의 대우 및 학급 친구들의 따돌림 등 환경적인 요인들과도 정적 상관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외부 환경적 요인 역시 개인 내적 요인과 더불어 한 개인의 분노 및 충동성 조절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Yzerbyt et al., 2003).

분노 및 충동성 조절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성

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낮은 수준의 직업 활동 및 낮은 보수와 열악한 직무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표 2〉 분노/충동 촉발 및 억제요인

변인	하위변인	촉발요인
개인 내적	생리적	신경전달물질의 역기능 (낮은 세로토닌 운반체 높은 카테콜아민, 테스토스테론, 낮은 코르티솔, 낮은 바소프레신 돌연변이 MAO) 뇌피질 기능저하 (전전두피질, 측두피질 변연계 피질전측대상회 내측후방 안와피질)
	인지적	집행기능 장애 (선택적 주의, 반응 억제, 계획 및 조직화 능력) 환경 및 대상에 대한 적대적 귀인 특성 부정적 자극에 대한 높은 주의편향력
	성격적	높은 분노민감성 높은 내현적 자기애 좌절에 대한 인내 부족 높은 보상 추구력
개인 외적	가정환경	가정폭력(직/간접) 학대(신체적, 언어적 포함) 방임(부모의 냉담함) 불안정 애착
	사회환경	학교폭력 및 따돌림 낮은 사회적 지지체계 외로움, 부당한 대우

다. 선행연구의 한계 및 제언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으로 살펴본 결과, 생리적, 인지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변인들이 분노/충동 및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최근 국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따른 귀인 양식이 분노/충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odge, 1990; Coccaro, 2009; Lemerise & Arsenio, 2000).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분노 및 충동 문제가 있는 자들의 촉발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장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척도들은 분노 및 충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주로 인지 또는 성격적 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와 과제를 차용한 것이었다.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이 중요 변인으로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인지 양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국내에 맞게 타당화 하고, 다른 척도들과 통합 및 축소하여 한국판 분노/충동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실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축형 분노/충동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척도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척도가 실제로 분노/충동 대상자와 일반인을 잘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2절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 구성 연구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분노 및 충동성,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에 더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SIP-AEQ를 타당화하여 전체 문항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분노 및 충동 경향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척도를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Coccaro 등(2009)이 개발한 SIP-AEQ는 사회정보처리이론에 기반을 두어 분노 및 그로 인한 충동적인 공격성 표출을 귀인(attribution) 성향을 통해 측정하려는 설문지로, 선행연구 결과 분노를 유발하는 적대적 귀인(hostile attribution) 성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노 및 충동성의 인지적 측면인 귀인과, 정서적인 측면인 정서적 반응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내 타당화 이후 사용된 설문지들과 차별점이 있고, 짧은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배경 또한 반영할 수 있다는 다수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IP-AEQ를 분노 및 충동 문제의 표출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에 포함시키기 위해 원판 SIP-AEQ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문항 검토 및 수정을 거쳐 한국판 SIP-AEQ를 완성하였다. 이후 완성된 설문지를 남녀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7개의 분노 및 충동성 측정 설문지와 SIP-AEQ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를 축소하여, 범죄를 저지른 대상군과 일반인들을 축소된 척도로 판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대상자

가. SIP-AEQ 타당화 및 문항 축소

소재 C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설문지 배포가 서면이 아닌 온라인 기반으로 작성된 설문지의 링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도권 및 기타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도 설문에 응답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400명으로 남자 200명(50%), 여자 200명(50%)이었다. 연령은 20세에서 29세 범위로, 평균 연령은 23.5(SD=2.03)세였다. 구체적으로는 20세 58명, 21세 54명, 22세 46명, 23세 63명, 24세 53명, 25세 60명, 26세 32명, 27세 13명, 28세 16명, 29세 5명이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295명(73.8%)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대학원생 이상인 경우는 103명(25.8%)이었다. 모든 설문 응답자는 SIP-AEQ와 더불어 K-BARQ, K-AQ, 분노사고척도, UPPS-P, BIS-II, TMMS, EPS(II부, III부)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문항을 축소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타당화에 사용되었던 20대 남녀 400명의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10~50대의 서울, 수도권 및 기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275명을 대상으로 SIP-AEQ, K-BARQ, 분노사고척도, UPPS-P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령 범위는 14세에서 63세였고, 평균 연령은 28.9세(SD=12.2)였다. 구체적으로는 10대 105명, 20대 409명, 30대 70명, 40대 26명, 50대 45명, 60대 2명이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그림 117〉 연구 절차 개요

가. SIP-AEQ 타당화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한국어로 번안된 SIP-AEQ의 요인 구조가 Coccoaro 등(2009)이 개발한 구조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확립된 요인구조가 국내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한국판 SIP-AEQ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내에 타당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노, 공격성, 충동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들을 동시에 실시하여 SIP-AEQ의 하위요인들과 적절한 상관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후 확정된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여 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경우, 선행연구(Coccoaro et al., 2009)와 마찬가지로 각 이야기에 포함되는 적대적 귀인 문항(A1, A4)과 부정적 정서반응 문항(B1, B2)이 각각 서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두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이야기 당 총 문항은 적대적 귀인 1문항, 도구적 귀인 1문항, 우호적 귀인 1문항, 부정적 정서반응 1문항인 것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경우에는 함께 실시한 7개의 분노, 공격성, 충동성,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SIP-AEQ의 총점 및 각 하위척도들의 총점으로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나.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를 위한 문항 축소

1)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 척도 구성

SIP-AEQ 타당화 과정에서 함께 사용했던 분노 및 충동성 관련 척도들 중,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Korean Anger/Impulsivity Questionnaire; K-AIQ) 구성에 포함될 설문지들을 추려 내어 1차적으로 문항을 선별하기 위하여 일반인 400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체 398문항을 변수로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6개의 설문지를 분노 측정 설문지(K-BARQ, 분노사고척도, K-AQ)와 충동성 측정 설문지(BIS-11, UPPS-P)로 분류하여 각각 묶어 두 번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분류마다 1요인에 어떤 문항이 많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별된 설문지를 1차적인 선별 문항으로 간주하고, 이후 새로운 표본을 수집해 문항 수를 더욱 축소하여 단축형(short-form)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2)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의 단축형 개발

앞서 1차적 문항 선별 과정에서 분노와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분류하여 문항을 선정하였으므로 분노/충동성의 2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SIP-AEQ의 경우 앞선 타당화 과정에서 분노 및 충동성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1차적인 분노행동이나 분노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모호한 상황에서의 적대적 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충동적 공격성향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분노와 충동을 모두 포함하는 ‘적대적 귀인’ 요인을 추가하여 3요인으로 설문용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문항 선별 과정에서 선별된 분노사고척도와 K-BARQ는 분노 요인에, UPPS-P는 충동성 요인에, SIP-AEQ는 적대적 귀인(분노 및 충동)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항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 축소과정에서는 모든 요인이 포함된 분노/충동성의 각 척도들에 대해 그 하위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앞서 SIP-AEQ 타당화 과정에서 실제 반응적 공격성의 표출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의 ‘신체적 공격성’ 하위척도와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들만을 선별하여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K-BARQ의 ‘직접표출’, ‘반추’ 요인, 이차적 분노사고척도의 ‘타인 비난/보복’ 요인, UPPS-P의 ‘긴급성(부정긴급성/긍정긴급성)’ 요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구성된 단축형 설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 내적 일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며 단축형이 아닌 전체 척도 점수와의 상관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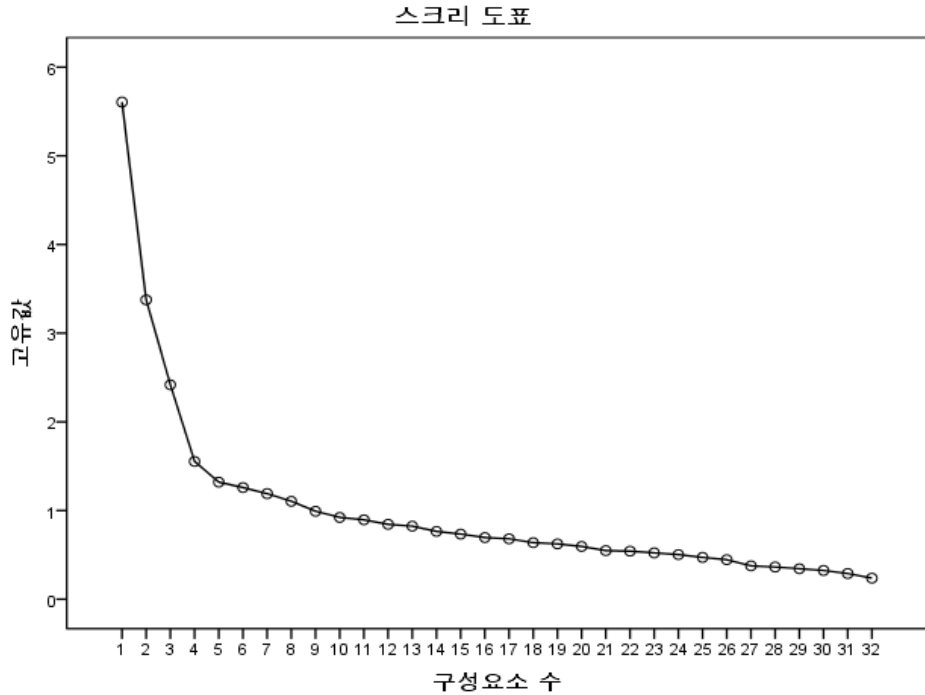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가. 한국판 SIP-AEQ의 타당화

1) 요인분석 결과

윈도우형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요인 수를 고정하지 않고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총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량은 55.71%

였다.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통해 요인 수를 살펴 본 결과, 4번째 요인부터 경사가 완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 4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스크리 도표를 통한 4요인 구조 확인

이에 따르면 모든 문항에 대해 4요인으로 고정하고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순서에 바람직하나, 본 설문지의 경우 귀인과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문항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Coccaro 등(2009)도 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문항이 서로 다른 요인구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종류의 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로만 3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부정적 정서반응 문항의 경우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리하여 검증하였다. 귀인 문항에 대해서 3요인으로 추출하여 요인계수행렬을 산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이거나 다른 요인에 대해 더 큰 부하량이 나타나는 경우의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에는 문항으로는 도구적 귀인 1번, 3번, 4번, 8번 문항과 우호적 귀인 1번, 2번, 4번 문항이 해당하였다.

그러나 본 설문지의 경우 다른 설문지와 차별적인 점이 각 이야기마다 공통적으로 적대적 귀인 2문항, 도구적 귀인 1문항, 우호적 귀인 1문항과 부정적 정서반응 1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때문에 각 이야기에 대하여 특정 귀인 문항만을 삭제할 경우, 설문지 전체 구조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특정 문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정 문항을 부득이하게 삭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항이 포함된 이야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전체 설문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요인 구조를 확립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도구적 귀인 문항과 우호적 귀인 문항이 공통적으로 모두 제외되어야 하는 이야기 1, 이야기 4에 포함된 모든 문항을 제거한 후 다시 3요인으로 고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3은 문항 제거 후 요인 계수 행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3〉 한국판 SIP-AEQ의 요인계수행렬

	구성요소		
	적대적 귀인	도구적 귀인	우호적 귀인
적대적 귀인 3	.712(.740)	-.154(-.079)	.215(.044)
적대적 귀인 8	.714(.729)	-.157(-.045)	.106(-.041)
적대적 귀인 2	.668(.713)	-.156(-.091)	.187(.021)
적대적 귀인 7	.780(.689)	.075(.276)	-.146(-.201)
적대적 귀인 4*	(.672)	(-.314)	(.115)
적대적 귀인 1*	(.669)	(.018)	(.051)
적대적 귀인 5	.651(.563)	.198(.366)	-.167(-.138)
적대적 귀인 6	.624(.542)	.120(.339)	-.231(-.219)
도구적 귀인 2	.181(.030)	.539(.673)	-.396(-.145)
도구적 귀인 5	.085(.013)	.579(.507)	.004(.215)
도구적 귀인 7	.303(.195)	.512(.498)	-.090(.094)
도구적 귀인 6	-.137(-.197)	.626(.476)	.052(.318)
도구적 귀인 1*	(.256)	(.369)	(-.057)
도구적 귀인 8	-.103(-.095)	.535(.276)	.305(.523)
도구적 귀인 4*	(.071)	(.187)	(.416)
도구적 귀인 3	-.048(-.066)	.488(.288)	.230(.416)

	구성요소		
	적대적 귀인	도구적 귀인	우호적 귀인
우호적 귀인 4*	(-.294)	(.677)	(.090)
우호적 귀인 2	-.038(.047)	.122(-.122)	.574(.550)
우호적 귀인 7	-.208(-.167)	.258(.047)	.434(.512)
우호적 귀인 5	.112(.190)	.016(-.120)	.549(.491)
우호적 귀인 6	.246(.352)	-.149(-.332)	.664(.483)
우호적 귀인 3	-.136(-.104)	.173(-.059)	.454(.482)
우호적 귀인 8	-.333(-.332)	.535(.342)	.211(.451)
우호적 귀인 1*	(-.018)	(.204)	(.273)

* 한국판 SIP-AEQ에서 제외된 문항

괄호 안 요인계수: 이야기 1, 4를 제외하기 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결과, 적대적 귀인 요인과 도구적 귀인 요인은 모두 해당 요인에 부하량이 .4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호적 귀인 8번 문항의 경우, 도구적 귀인 요인에 부하량이 더 크게 나타나 본 문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최종적으로는 문항에서 삭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SIP-AEQ의 총 문항 수는 35문항으로, 각각 적대적 귀인(12문항), 도구적 귀인(6문항), 우호적 귀인(5문항), 부정적 정서반응(12문항)의 4요인 구조로 확정되었다.

2) 신뢰도 분석

35문항으로 확정된 한국판 SIP-AEQ의 하위척도와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적대적 귀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3이고 부정적 정서반응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69로 두 척도 모두 양호한 편이었으며, 도구적 귀인 척도와 우호적 귀인 척도는 각각 .591과 .498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문항 수가 13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35문항 척도의 신뢰도가 .77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한국판 SIP-AEQ의 내적 합치도

요인	Cronbach's α	Coccaro 등(2009)*
적대적 귀인	.793	.870
도구적 귀인	.591	.530
우호적 귀인	.498	.650
부정적 정서반응	.769	.850
전체 점수	.772	-

* Coccaro 등(2009)의 경우 총 48문항 기준임

3) 타당도 분석

35문항으로 확정된 한국판 SIP-AEQ와, K-BARQ, K-AQ, 분노사고척도, BIS-II, UPPS-P, TMMS, EPS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SIP-AEQ가 분노 및 충동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 얼마나 일치하여 측정하는지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알아볼 수 있다.

먼저 SIP-AEQ 총점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 및 부정적 정서반응 경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K-BARQ($r=.402$), 일차적 분노사고척도($r=.499$), 이차적 분노사고척도($r=.408$)와 $p<.01$ 수준에서 양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K-AQ($r=.345$) 및 UPPS-P($r=.136$)와는 $p<.01$ 수준에서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TMMS와는 약한 부적 상관($r=-.163$)이 나타나 적대적 귀인 및 부정적 정서반응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타당하게 인식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낮음을 확인하였다. 뒤이어 하위척도 중 적대적 귀인 척도를 살펴보면, K-BARQ, 일차적,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UPPS-P, K-AQ와 모두 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TMMS와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여 총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 총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BIS-II 척도와도 $p<.01$ 수준에서 약한 정적 상관($r=.138$)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SIP-AEQ가 분노 및 충동성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귀인 경향을 통해 분노 및 충동성 경향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5).

또한 성격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이젠크 성격검사(EPS)의 하위척도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SIP-AEQ 총점과 EPS의 신경증(N) 척도, 충동성(Imp) 척도, 감정이입(Emp) 척도가 $p < .01$ 수준에서 약한 정적 상관($r = .271$, $r = .130$, $r = .239$)을 나타냈다. 특히 신경증 척도와의 정적 상관은 부정적 정서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한국판 SIP-AEQ가 특히 적대적 귀인과 부정적 정서반응 요인을 통해 분노와 그로 인한 충동적인 공격성 표출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표 6).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들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계산하여 SIP-AEQ 총점 및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먼저 분노를 측정하는 척도들 중 K-BARQ의 경우, 하위요인은 총 6개로 사회적지지 추구, 직접 분노표출, 반추, 자기표현, 분산, 회피가 포함된다. 이 중 직접 표출은 좌절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언어적 또는 행동적으로 분노를 직접 드러내는 것을 뜻하므로, 분노와 그로 인한 공격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하위척도라도 할 수 있다. 이 하위척도와 SIP-AEQ 총점 간 상관은 $.418$ ($p < .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SIP-AEQ의 타당도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K-BARQ의 하위척도 중 반추 척도와도 $.418$ ($p < .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분노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는 분노 표현의 인지적 측면의 일종으로 공격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hman et al., 2005). 이는 분노 및 그로 인한 충동적 공격성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SIP-AEQ의 타당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노행동척도뿐 아니라 분노사고척도 역시, 모든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중 타인비난/보복 하위요인이 가장 분노 상황에서의 공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척도와의 상관이 $.402$ ($p < .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SIP-AEQ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었다.

한편 충동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에 대해서도 하위척도별로 상관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BIS-11에서는 총점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그 하위에 포함된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중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었다. 무계획 충동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지만, 인지 충동성과는 $.124$, 운동 충동성과는 $.165$ ($p < .01$)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SIP-AEQ

는 분노 뿐 아니라 충동성 역시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충동적인 공격행동으로 연결되기 쉬운 운동 충동성과의 상관이 그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UPPS-P의 경우에는 부정 긴급성, 긍정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의 총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두 긴급성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긴급성은 공통적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말하는데, 부정 긴급성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상태에서, 긍정 긴급성은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선영, 이영호, 2014). SIP-AEQ와의 상관을 보았을 때, 부정긴급성은 .278의 상관계수를, 긍정긴급성은 .192의 상관계수를 나타내($p < .01$) 부정적 정서인 분노에 의한 충동성을 SIP-AEQ가 타당하게 측정해 주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 척도인 K-AQ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신체적 공격성 .233, 언어적 공격성 .104, 분노감 .306, 적대감 .386으로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적대감 하위척도와의 높은 상관은 SIP-AEQ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적대적 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분노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또 공격성의 경우 언어적 공격성보다는 신체적 공격성과의 상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SIP-AEQ가 충동적이고 반응적인 공격성을 다소 잘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5〉 SIP-AEQ 총점과 분노 및 공격성 관련 척도의 상관계수

척도	SIP-AEQ 총점	K-BARQ	일차적 분노사고척도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K-BARQ	.402**			
일차적 분노사고척도	.499**	.434**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408**	.506**	.541**	
K-AQ	.352**	.161**	.287**	.441**

* $p < .05$, ** $p < .01$

〈표 6〉 SIP-AEQ 총점과 충동성 관련 척도의 상관계수

척도	SIP-AEQ 총점	BIS-II	UPPS-P
BIS-II	.084		
UPPS-P	.131**	.467**	
EPS_imp	.125*	.557**	.604**

* $p < .05$, ** $p < .01$

나.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를 위한 문항 축소

1)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K-AIQ) 구성

(1) 요인분석 결과

앞서 타당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윈도우형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분노 척도 모음, 충동성 척도 모음에 대하여 각각 요인 수를 고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 척도들과 충동성 척도들 모두에 대해 KMO 검정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분노: .822 충동성: .876).

먼저 분노 척도 모음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중 1요인의 설명량이 8.375%로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어떠한 문항들이 포함되는지를 인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이 총 46문항이었다. 이 중 이차적 분노사고척도가 22문항으로 가장 상위에 많이 포함되어있었으며, 다음으로 K-BARQ가 8문항, K-AQ가 7문항, 일차적 분노사고척도가 9문항이었다. 따라서 분노 측정 척도 중 이차적 분노사고척도가 가장 분노 측정에 적절한 척도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충동성 척도 모음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요인의 설명량은 15.58%였다. 분노 척도에서와 마찬가지로 1요인에 어떤 척도의 문항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니, 총 34문항 중 BIS-II 문항은 4개, 나머지 대부분 상위의 30문항은 UPPS-P로 충동성의 설명은 UPPS-P가 가장 잘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과적으로, K-AIQ 단축형 개발을 위한 1차적인 문항 선별에는 분노 측정 도구로 이차적 분노사고척도를, 충동성 측정 도구로 UPPS-P를 선정하여 여기에 타당화된 SIP-AEQ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SIP-AEQ 타당화 과정에서 확인했던 SIP-AEQ와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UPPS-P와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본 결과 두 상관계수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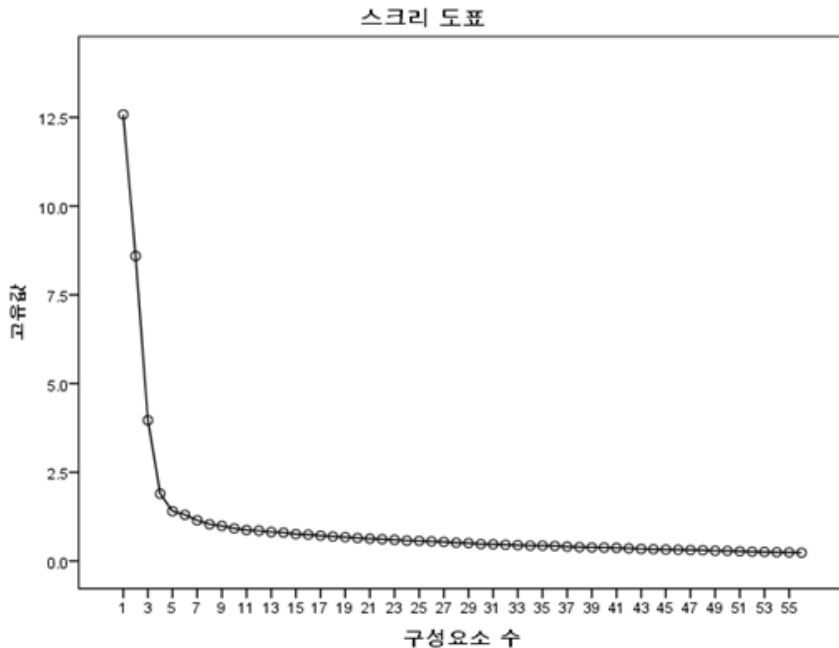
그런데 이 경우, 이차적 분노사고척도는 총 34문항, UPPS-P는 총 59문항으로 분노와 충동성 측정 척도 간 문항 수의 비율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노 척도에 한 가지 척도를 더 추가하여 단축형 설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1요인에 9문항이 포함되지만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일차적 분노사고척도보다는 8문항이 포함되는 K-BARQ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SIP-AEQ와의 상관을 보았을 때, K-BARQ 역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만 이 때, UPPS-P와의 문항 비율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K-BARQ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았던 하위 9문항을 제거하여 총 22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K-AIQ 단축형 구성을 위한 1차적 문항 축소를 위해, 총 398문항의 설문지들 중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34문항, K-BARQ 22문항, UPPS-P 59문항, SIP-AEQ 35문항과 더불어 선별된 15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윈도우형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분노, 충동성, 적대적 귀인의 3요인으로 요인 수를 고정하고 분석한 후,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인 문항들을 반복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기존 척도에 포함된 하위요인들 중 분노 및 충동성과 연관된 반응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하위척도들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확인하여 이에 포함되는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여기에는 K-BARQ의 ‘직접표출’, ‘반추’ 요인, 이차적 분노사고척도의 ‘타인비난/보복’ 요인, UPPS-P의 ‘긴급성(부정긴급성/긍정긴급성)’ 요인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상관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한 결과,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의 1차 문항은 총 90문항으로 선별되었다.

2)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질문지 단축형 개발

(1) 요인분석 결과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추려진 91문항에 대해 타당화 및 문항 선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윈도우형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분노, 충동성의 2요인으로 문항을 구성하고자 요인 수를 2로 고정하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설명량은 36.76%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요인 선택 시 고유값이 10.0이상으로 2요인을 선택함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단축형 설문지의 스크리 도표를 통한 3요인 구조 확인

그런데 이 경우, K-BARQ, 이차적 분노사고척도, UPPS-P의 경우에는 분노와 충동성 두 요인에 적절히 포함되었으나, SIP-AEQ의 경우에는 두 요인 중 어떤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SIP-AEQ를 분노와 충동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적대적 귀인’ 요인으로 설정하여, 총 3요인으로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3으로 고정하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설명량은 41.66%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3요인 선택 시 고유값이 2.5이상으로 3요인을 선택함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2).

따라서 이렇게 추출된 3요인에 포함되는 각각의 문항들 중에서, 먼저 요인계수가 .40 미만인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UPPS-P 12번, 50번, 53번, K-BARQ 9번, 10번, 14번, 우호적 귀인 3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추려진 문항 중 더욱 핵심적인 측정이 가능한 문항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단축형 설문지의 문항을 선별하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문항의 순위를 정한 후,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값의 변화를 살펴 더 이상 내적 합치도가 증가하지 않는 수준의 문항까지만 포함시키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김완석, 2007). 그 결과 분노사고척도 22번, UPPS-P 7번, 34번, 5번, K-BARQ 28, 29번, 18번, SIP-AEQ의 도구적 귀인 2번~8번, 우호적 귀인 2번~7번까지의 문항이 제외되었다. 이 때, K-BARQ의 경우 기존 11문항 중 5문항만이 분노 요인의 하위에 포함되었으며, 포함되는 문항들을 살펴 본 결과 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추'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반추' 요인은 분노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반응적 공격성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으나 다른 문항들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으로 최종 문항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K-BARQ 문항을 제외한 요인분석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표 7).

〈표 7〉 K-AIQ 단축형의 요인계수행렬

	구성요소		
	총동성	분노	적대적 귀인
UPPS-P45	.856	.035	.003
UPPS-P40	.850	.025	-.012
UPPS-P49	.818	.018	.022
UPPS-P25	.818	.000	-.007
UPPS-P52	.803	.011	-.023

	구성요소		
	충동성	분노	적대적 귀인
UPPS-P44	.793	.014	-.025
UPPS-P39	.790	.016	.003
UPPS-P20	.778	-.020	-.033
UPPS-P15	.747	.036	-.055
UPPS-P57	.741	.060	.008
분노사고척도33	.041	.767	.101
분노사고척도17	.051	.756	.065
분노사고척도2	.031	.744	.106
분노사고척도14	-.026	.734	.127
분노사고척도21	.057	.731	.104
분노사고척도5	-.043	.703	.248
분노사고척도10	.083	.685	.042
분노사고척도24	-.005	.684	.111
분노사고척도13	.010	.673	.101
분노사고척도30	-.022	.671	.153
적대적 귀인6	-.055	.129	.699
부정적 정서7	-.057	.124	.692
부정적 정서6	-.006	.072	.684
적대적 귀인7	.032	.137	.650
부정적 정서5	-.019	.061	.616
적대적 귀인5	-.122	.152	.607
부정적 정서3	.101	.112	.587
부정적 정서2	-.075	.051	.556
적대적 귀인3	.059	.085	.538
적대적 귀인2	.016	.066	.489

결과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단축형 설문지 문항 수는 총 30문항으로, 충동성(10문항), 분노(10문항), 적대적 귀인(10문항)의 3요인 구조로 확인되었다. 본 단축형 설문지의 총점은 그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 공격행동에 기여하는 분노 및 충동성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적대적 귀인 요인은 분노와 충동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단독으로 하나의 하위점수를 산출하기보다는 분노와 충동성 점수로 통합하여 분노/충동 및 총점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단축형 척도에 포함된 SIP-AEQ의 문항과 분노, 충동성 하위요인의 총점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IP-AEQ 문항은 다음과 같이 분노 및 충동성을 더 잘 측정하는 문항들로 분류되었다(표 8). 따라서 본 단축형 척도의 최종 문항은 충동성(14문항), 분노(20문항)으로, 여기에 중복되는 적대적 귀인 2번, 3번, 7번과 부정적 정서반응 3번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확정되었다.

〈표 8〉 분노/충동성을 측정하는 SIP-AEQ 문항

	분노	충동성	분노 및 충동
문항	적대적 귀인 2	적대적 귀인 2	적대적 귀인 2
	적대적 귀인 3	적대적 귀인 3	적대적 귀인 3
	적대적 귀인 5	적대적 귀인 7	적대적 귀인 7
	적대적 귀인 6	부정적 정서 3	부정적 정서 3
	적대적 귀인 7		
	부정적 정서 2		
	부정적 정서 3		
	부정적 정서 5		
	부정적 정서 6		
	부정적 정서 7		

(2) 신뢰도 분석

30문항으로 확정된 한국판 K-AIQ 단축형의 하위척도와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분노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65이고 충동성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54로 모든 하위척도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21로, 단축형 척도가 상당히 높은 내적 합치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표 9).

〈표 9〉 K-AIQ 단축형의 내적 합치도

요인	Cronbach's α
분노	.865
충동성	.854
전체 점수	.861

(3) 타당도 분석

30문항으로 확정된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 단축형과, 축소 전 전체 문항을 포함한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단축형 설문지의 구성타당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척도의 총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노/충동의 하위 요인 점수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표9 에서 제시된 SIP-AEQ의 문항 점수가 계산되어 합산된다. 이를 통해 산출한 단축형 척도의 총점, 분노 점수, 충동성 점수와 단축하기 전의 분노사고척도, K-BARQ, UPPS-P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단축형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표 10〉 단축형 설문지 총점 및 하위요인과 원 척도의 상관계수

척도	단축형 총점	분노	충동성	UPPS-P	분노사고 척도	분노행동척도
단축형 총점	1					
분노	.933**	1				
충동성	.868**	.632**	1			
UPPS-P	.400**	.016	.771**	1		
분노사고척도	.632**	.772**	.094*	-.017	1	
분노행동척도	.409**	.511**	.045	-.110*	.531**	1

* $p < .05$, ** $p < .01$

본 단축형 설문지의 총점과 단축 전 원 척도와 상관뿐만 아니라 단축형 척도에 포함된 하위척도들과의 상관도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통해 각 척도가 분노, 충동성 및 적대적 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IP-AEQ 타당화 과정에서 사용된 일차적 분노사고척도, K-AQ, BIS-11 등 본 단축형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분노/충동성 척도들과의 상관을 일반인 400명의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역시 단축형 설문지의 총점 및 분노/충동성 하위요인 점수와 각 척도들의 총점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표 11)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와 총점 간 $r = .606(p < .01)$, BIS-11 $r = .319(p < .01)$, 일차적 분노사고척도 $r = .478(p < .01)$ 이었다. 이를 통해 K-AIQ 역시 분노 및 충동 경향성을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 단축형 설문지 총점 및 하위요인과 기타 척도와의 상관계수

척도	단축형 총점	분노	충동성	K-AQ	BIS-11	일차적 분노사고척도
단축형 총점	1					
분노	.915**	1				
충동성	.789**	.632**	1			
K-AQ	.606**	.525**	.524**	1		
BIS-11	.319**	.198**	.395**	.392*	1	
일차적 분노사고척도	.478**	.552**	.202**	.287**	.042	1

* $p < .05$, ** $p < .01$

3) 연구의 함의점

본 연구에서는 SIP-AEQ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타당화하고, 이와 더불어 문항 축소 절차를 통해 분노 및 충동 경향성을 더욱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축형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분노 및 충동적인 공격행동의 촉발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지적 요인, 특히 새롭게 그 중요성을 각광받고 있는 적대적 귀인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SIP-AEQ가 한국에서도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분노/충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었던 기존 척도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단축형 분노/행동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단축형 척도를 통해 실제 분노충동범죄자와 일반인들 간 분노 및 충동성의 차이를 판별해 낼 수 있다면, 분노충동범죄를 대상으로 한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분노/충동의 단순한 2요인 구조로 통합 구성되어 있는 본 척도의 특성상 검사자를 분노/충동/분노충동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실무 현장에서 분노충동범죄자를 다루는 데 있어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K-AIQ)의 판별 타당성 연구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위에서 구성한 한국판 분노/충동 질문지(K-AIQ)와 K-AIQ단축형을 기준으로 분노/충동 문제 대상군과 일반인 간의 판별 타당성과 판별률을 검증하고, ROC 분석을 통해 변별력이 높은 하위척도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국내 활용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0대, 20-30대, 40-50대 분노/충동 대상군 275명과 일반인 257명에게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 실시 후 각 하위척도별 변별력을 검증하여, 분노/충동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써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대상군을 김천소년교도소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 그리고 부산교도소에 현재 수감된 분노/충동 범죄자(살인, 폭력, 성폭행 등 중범죄 이상)로 설정하였다. 공문을 통해 교도소에 협조 요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았으며 재소자의 자발적인 참가 의사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이후 참여 사례비 1만원을 영치금 형태로 지급하였다. 2014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라 분노/충동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여성보다 남성이 우세한 바, 대상군과 일반인을 모두 남성으로 모집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서울, 수도권 및 기타 광역시에 거주하는 10대, 20-30대, 40-50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지 및 온라인 형태로 제작된 K-AIQ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인원은 대상군의 경우 275명으로, 평균 연령은 35.0(SD=14.5)세였다. 구체적으로는 10대 73명, 20대 41명, 30대 49명, 40대 54명, 50대 48명, 60대 10명이었다. 일반인의 경우 257명으로, 평균 연령은 31.5(SD=14.3)세였다. 구체적으로는 10대 105명, 20대 9명, 30대 70명, 40대 26명, 50대 46명, 60대 2명이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대상군의 설문 검사는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각 교도소 안의 교도관 주관 하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한 후 오프라인 형태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의 경우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배부하였다. 참가자에게는 모든 설문을 무사히 마칠 경우 참가비가 지급되며, 설문 도중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스스로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13〉 연구절차

먼저 분노/충동 범죄 대상군과 일반인에 따른 K-AIQ와 단축형의 평균 점수 수준을 파악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의 전체 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분노/충동 범죄 대상군과 일반인의 분류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고, 개별 하위척도 점수의 변별력 수준과 점수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세부적 이해를 얻기 위해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ROC 분석은 민감도와 특이도의 수준을 근거로, 척도 점수를 통한 가장 적합한 수준의 집단 분류 기준을 제시해 준다. AUC (area under the curve)값은 ROC 분석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통해 도출된 곡선의 아래 부분 면적을 의미하며, 이 값을 통해 판별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AUC가 .70 이상일 때, 검사 도구는 유용한 진단 도구로 생각될 수 있다.

4.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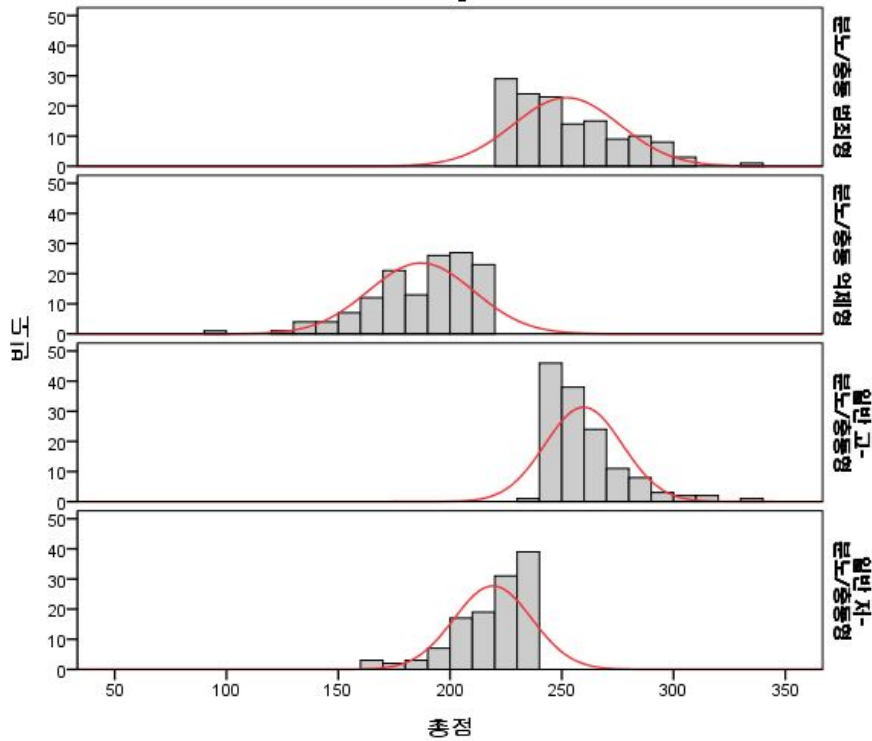
가. 대상군과 일반인 간 판별분석 결과

1) K-AIQ의 판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경우 한 번으로 일관적으로 응답하거나 자신의 분노와 공격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낮게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상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한 인상관리 전략이 사용되었거나, 교도소라는 환경 내에 수감된 상태에서 설문 실시한 바를 고려할 때 제대로 응답한 수감자와 그렇지 않은 수감자를 변별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점수 간 유사성 거리를 바탕으로 두 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두 군집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군집 1의 경우 분노/충동을 방어하지 않은 형태로 성실히 응답하였다고 판단하여 “분노/충동 범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군집 2의 경우 방어하는 형태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가 해당되니 “분노/충동 억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인 역시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군집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류 변수에 따라 군집 1을 “일반인 고-분노/충동형”, 군집 2를 “일반인 저-분노/충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네 유형을 대상으로 집단 간 연령, K-AIQ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차이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전체 집단의 연령, K-AIQ 총점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분노/충동 범죄형 (n=136)		분노/충동 억제형 (n=139)		일반인 고-분노/충동형(n=136)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n=121)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령	35.9	14.5	34.2	14.4	31.3	13.8	31.7	14.8
분노	133.6	17.9	93.7	14.8	139.6	19.6	117.7	26.7
충동성	78.6	15.8	55.6	13.6	78.6	15.8	71.3	17.8
총점	227.4	25.1	160.3	23.6	233.6	16.6	202.4	37.0



〈그림 14〉 전체 집단 별 K-AIQ 총점에 대한 분포

판별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대로 대상군이 일반인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는 “분노/충동 범죄형” 집단과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집단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K-AIQ의 90문항에는 적대적 귀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귀인 양식을 확인하고자,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귀인을 측정하는 우호적 귀인과 도구적 귀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판별 분석에서 일반인과 대상군을 판별하는데 있어 분노, 충동성 척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위의 두 귀인이 판별 결과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K-AIQ의 판별률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호적 귀인과 도구적 귀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한 79문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군 127명 중 90명이 범죄 집단으로 예측되어 70.9%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으며, 일반인 또한 117명 중 107명이 일반인으로 예측되어 91.5%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 80.7%의 높은 분류 정확률을 나타내었다 (표 13).

〈표 13〉 K-AIQ 판별 분류 결과

	집단	예측 소속집단		전체
		일반인-저분노/충동형	분노/충동 범죄형	
빈도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107	10	117
	분노/충동 범죄형	37	90	127
%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91.5	8.5	100.0
	분노/충동 범죄형	29.1	70.9	100.0

a.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80.7%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2) K-AIQ 단축형의 판별분석 결과

K-AIQ 단축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K-AIQ에서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대상군과 일반인을 각각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점수 간 유사성 거리를 바탕으로 두 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두 군집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군의 군집 1의 경우 분노/충동을 방어하지 않은 형태로 성실히 응답하였다고 판단하여 “분노/충동 범죄형”으로, 군집 2의 경우 방어하는 형태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가 해당된바 “분노/충동 억제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인의 군집 1을 “일반인 고-분노/충동형”, 군집 2를 “일반인 저-분노/충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네 유형을 대상으로 K-AIQ 단축형의 총점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차이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 K-AIQ 단축형 총점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분노/충동 범죄형 (n=136)		분노/충동 억제형 (n=139)		일반인 고-분노/충동형(n=136)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n=121)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령	35.8	14.3	34.2	14.6	29.9	13.7	33.2	14.8
분노	77.7	9.8	55.0	8.9	78.1	10.4	57.8	10.5
충동성	47.2	7.5	32.7	6.3	47.2	6.9	41.3	7.5
총점	108.5	12.2	75.4	10.8	110.8	9.0	87.5	8.4

판별 분석 또한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의 판별 정확성 확인에서 사용한 방법과 일치하게, “분노/충동 범죄형” 집단과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집단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군 125명 중 102명이 범죄 집단으로 예측되어 81.6%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으며, 일반인 또한 94명 중 88명이 일반인으로 예측되어 93.6%가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 86.8%의 높은 분류 정확률을 나타내었다 (표 15).

〈표 15〉 K-AIQ 단축형 분류 결과

	집단	예측 소속집단		전체
		일반인-저분노/충동형	분노/충동 범죄형	
빈도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88	6	94
	분노/충동 범죄형	23	102	125
%	일반인 저-분노/충동형	93.6	6.4	100.0
	분노/충동 범죄형	18.4	81.6	100.0

a.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86.8%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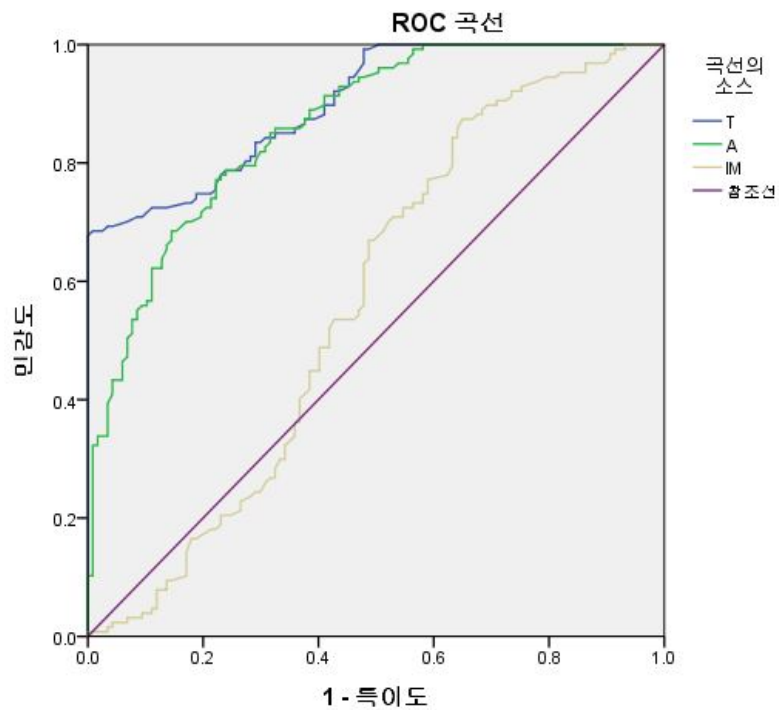
나. 대상군과 일반인 간 ROC 분석 결과

1) K-AIQ의 ROC 분석 결과

판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K-AIQ의 총점과 세 가지 하위척도(분노, 충동성) 점수를 이용하여, 분노/충동 범죄 대상군과 일반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RO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점과 두 가지 하위척도 (분노, 충동성) 점수에서 모두 0.7 이상의 AUC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 판별의 정확도 수준은 AUC가 .90~1.00일 경우 매우 우수, .80~.90일 경우 우수, .70~.80일 경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AUC 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점의 경우 .90의 영역 값으로 매우 우수한 정확률을 보였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로 .86의 값을 통해 우수한 수준으로 일반인과 대상군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충동성의 경우 .56로 판별하기에 적합한 수준이지만, 다른 값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판별 적합도가 산출되었다. 이는 대

상군들이 교도소라는 통제된 상황 속에 놓여있고, 수감 생활로 인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충동적인 상황에 일반인보다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대상군이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인한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응답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사회적 바람직성과 응답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 응답 왜곡의 가능성을 잘 통제한다면 판별 타당도가 상승할 것이다 (표 16).



〈그림 15〉 K-AIQ의 ROC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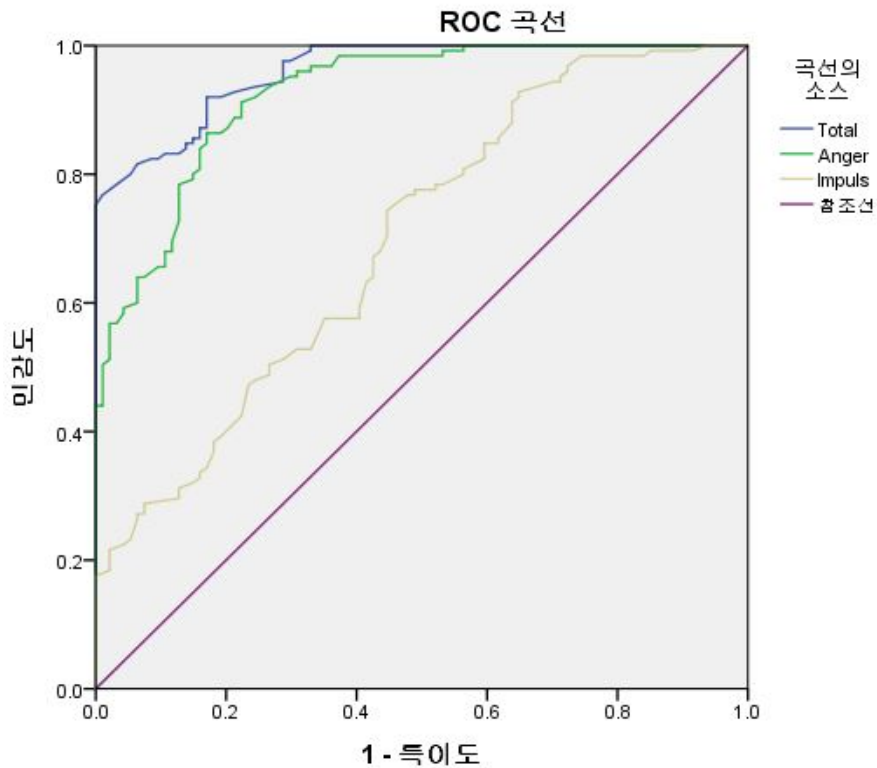
〈표 16〉 K-AIQ 곡선 아래 영역

검정 결과 변수	영역	표준 오차 ^a	근사 유의확률 ^b	근사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점	.875	.020	.000	.835	.915
분노	.828	.025	.000	.780	.877
충동성	.591	.037	.000	.520	.663

이를 통해 K-AIQ의 총점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하위척도가 우수한 정확성을 가지고 대상군과 일반인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K-AIQ 단축형의 ROC 분석 결과

판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K-AIQ 단축형의 총점과 두 가지 하위척도(분노, 충동성) 점수를 이용하여, 분노/충동 범죄 대상군과 일반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RO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점과 분노 하위척도 점수에서 0.9 이상의 AUC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충동성 하위척도 점수에서 .69의 AUC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6).



〈그림 16〉 K-AIQ 단축형의 ROC 곡선

각각의 AUC 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점의 경우 .96의 영역 값으로 매우 우수한 정확률을 보였다. 분노 경우 마찬가지로 .92의 값을 통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의 경우 .69로 적합한 정도의 수준에서 일반인과 대상군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17).

〈표 17〉 K-AIQ 단축형 곡선 아래 영역

검정 결과 변수	영역	표준 오차 ^a	근사 유의확률 ^b	근사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점	.960	.011	.000	.939	.981
분노	.924	.017	.000	.897	.957
충동성	.697	.035	.000	.628	.766

다. 채점 체계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1) K-AIQ 및 단축형의 채점체계

본 연구에서 구성한 K-AIQ는 총 90문항, 단축형은 30문항으로, 분노와 충동성 그리고 분노 및 충동성과 관련된 적대적 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분노 문항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충동성과 적대적 귀인 문항의 경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척도들의 채점체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4점 리커트 척도에 해당하는 충동성과 적대적 귀인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에 맞춰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즉, 충동성과 적대적 귀인 문항의 채점에서 기존에 1, 2, 3, 4점으로 측정되는 점수를, 2점을 1.8점, 3점을 3.4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1, 1.8, 3.4, 4점으로 변환한 점수를 분노 측정 점수와 합산하여 총점과 하위척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하위척도는 분노와 충동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적대적 귀인을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을 확인하여, 분노 하위척도와 충동성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18〉 K-AIQ 및 단축형 채점체계

	기존 채점체계	변환 채점체계
분노(ATS)	5점 리커트 척도 (1, 2, 3, 4, 5점)	
충동성(UPPS-P)	4점 리커트 척도 (1, 2, 3, 4점)	가중치 부여 (1, 1.8, 3.4, 4점)
적대적 귀인(SIP-AEQ)	4점 리커트 척도 (1, 2, 3, 4점)	가중치 부여 (1, 1.8, 3.4, 4점)

2) K-AIQ 및 단축형의 기준점 확인

K-AIQ와 K-AIQ 단축형의 기준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집단 일반인 집단, 그리고 대상군 집단에 대해 각각 K-AIQ 및 단축형 분노 하위척도와 충동성 하위척도의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분노 하위척도에서 2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분노 위험군’으로, 1표준편차 이상 ~ 2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을 ‘분노 경향군’으로 분류하였다. 충동성 하위척도 역시 분노 하위척도와 마찬가지로, 2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충동성 위험군’, 1표준편차 이상 ~ 2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을 ‘충동성 경향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노와 충동성 하위척도 둘 다 2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분노충동 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표준편차 이상 ~ 2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을 ‘분노충동 경향군’으로 분류하였다. K-AIQ와 단축형 K-AIQ에 대한 각 기준 별 평균 및 1표준편차, 2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값은 다음과 같다.

〈표 19〉 K-AIQ 점수 기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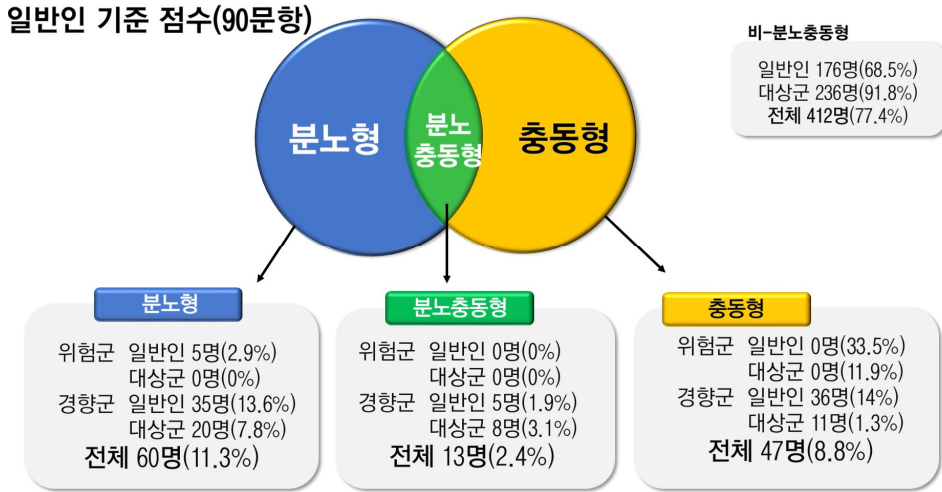
		전체		일반인 기준		재소자 기준	
		분노	충동	분노	충동	분노	충동
90 문항	1SD	137.1 (±28.1)	89.8 (±17.6)	143.6 (±27.7)	94.6 (±16.4)	131.0 (±27.1)	85.3 (±17.5)
	2SD	137.1 (±56.2)	137.1 (±35.2)	143.6 (±54.2)	94.6 (±32.8)	131.0 (±54.2)	85.3 (±35.0)
30 문항	1SD	67.9 (±14.7)	51.5 (±9.4)	70.7 (±14.3)	45.1 (±7.7)	65.3 (±14.6)	39.3 (±9.9)
	2SD	67.9 (±29.4)	51.5 (18.8)	70.7 (±28.6)	45.1 (±15.4)	65.3 (±29.2)	39.3 (±19.9)

3) K-AIQ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대상군 집단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산출한 후, 일반인과 대상군을 분류한 결과 전체 대상군 275명 중 2명이 분노 위험군(0.7%), 39명이 분노 경향군(14.2%)로 분류되었다. 충동형의 경우 45명(16.4%)이 충동 경향군으로 분류되었다. 추가적으로 22명(8%)의 분노충동 경향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 총 257명 중 13명(4.7%)이 분노 위험군으로, 52(18.9%)명이 분노 경향군으로 분류되었다. 더불어 충동형의 경우 87명(31.6%)이 충동 경향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노충동 위험군은 2명(0.7%), 분노충동 경향군은 8명(2.9%)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상군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을 수 있다. 전체적인 평균을 확인하였을 때, 일반인이 대상군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보아, 실제 경찰서와 같은 수사현장에서도 분노/충동 대상군이 일반인보다 자신을 드러나지 않기 위한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K-AIQ의 기준점은 일반인과 대상군에 맞게 2표준편차와, 1표준편차를 확인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기준에 따라 분류한 비율은 표 20에 기술되어 있다.

〈표 20〉 K-AIQ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집단	전체(532)				일반인 기준(257)				재소자 기준(275)				
	분노	충동	분노충동	비-분노충동	분노	충동	분노충동	비-분노충동	분노	충동	분노충동	비-분노충동	
위험군 (2SD)	소계	7명 (1.3%)	4명 (0.7%)	2명 (0.3%)	370명 (69.5%)	5명 (0.9%)	0명	2명 (0.3%)	412명 (77.4%)	15명 (2.8%)	11명 (2.0%)	11명 (2.0%)	251명 (47.1%)
	일반인	5명 (0.9%)	4명 (0.8%)	1명 (0.3%)	141명 (26.5%)	5명 (2.9%)	0명	1명 (0.3%)	176명 (68.5%)	13명 (4.7%)	11명 (4.0%)	4명 (0.7%)	84명 (30.5%)
	재소자	2명 (0.4%)	0명	1명 (0.3%)	229명 (43.0%)	0명	0명	1명 (0.3%)	236명 (91.8%)	2명 (0.7%)	0명	7명 (2.5%)	167명 (60.7%)
경향군 (1SD)	소계	66명 (12.4%)	67명 (12.5%)	16명 (3.0%)	370명 (69.5%)	55명 (10.3%)	47명 (8.8%)	11명 (2.0%)	412명 (77.4%)	91명 (17.1%)	132명 (24.8%)	21명 (3.9%)	251명 (47.1%)
	일반인	48명 (9.0%)	53명 (10.0%)	5명 (1.9%)	141명 (26.5%)	35명 (13.6%)	36명 (14.0%)	4명 (1.5%)	176명 (68.5%)	52명 (18.9%)	87명 (31.6%)	6명 (2.3%)	84명 (30.5%)
	재소자	18명 (3.4%)	14명 (2.6%)	11명 (4.0%)	229명 (43%)	20명 (7.8%)	11명 (4.3%)	7명 (2.5%)	236명 (91.8%)	39명 (14.2%)	45명 (16.4%)	15명 (5.4%)	167명 (60.7%)
총인원	73명 (13.7%)	71명 (13.3%)	18명 (3.4%)	370명 (69.5%)	60명 (11.3%)	47명 (8.8%)	13명 (2.4%)	412명 (77.4%)	106명 (19.9%)	143명 (26.9%)	32명 (6.0%)	251명 (47.2%)	
합계		532명 (100%)			532명 (100%)			532명 (100%)					



〈그림 17〉 K-AIQ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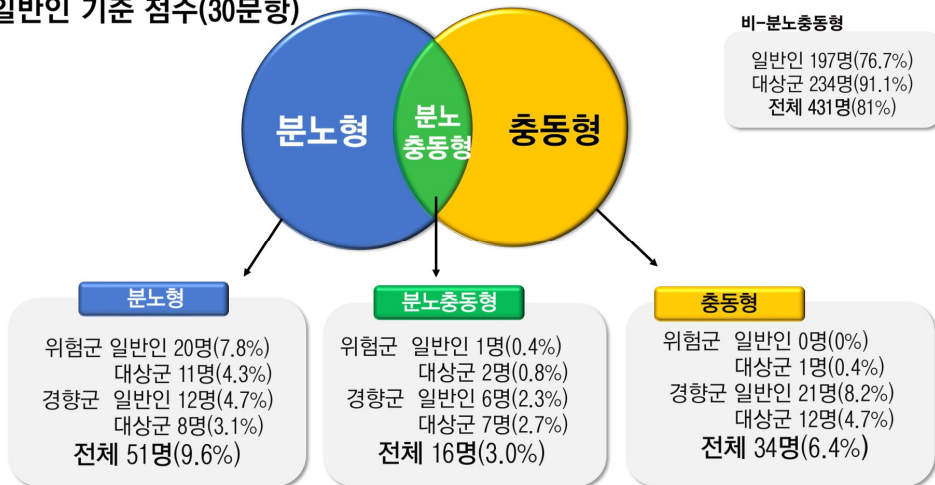
4) K-AIQ 단축형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K-AIQ 단축형으로 대상군 집단을 중심으로 한 기준점을 산출한 결과, 전체 대상군 275명 중 3명이 분노 위험군(1.1%), 13명이 분노 경향군(4.7%)로 분류되었다. 충동형의 경우 15명(5.5%)이 충동 경향군으로 분류되었다. 추가적으로 2명(0.7%)의 분노충동 위험군과 29명(10.5%)의 분노충동 경향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 총 257명 중 11명(4.0%)이 분노 위험군으로, 30(10.9%)명이 분노 경향군으로 분류되었다. 더불어 충동형의 경우 63명(22.9%)이 충동 경향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노충동 위험군은 1명(0.4%), 분노충동 경향군은 20명(7.3%)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인과 전체 대상군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단축형 K-AIQ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집단	전체(532)				일반인 기준(257)				제소자 기준(275)				
	분노	충동	분노 충동	비-분노 충동	분노	충동	분노 충동	비-분노 충동	분노	충동	분노 충동	비-분노 충동	
소계	10명 (1.3%)	1명 (0.7%)	6명 (0.3%)	370명 (69.5%)	31명 (0.9%)	1명 (0.3%)	5명 (0.3%)	412명 (77.4%)	14명 (2.8%)	2명 (2.0%)	12명 (2.0%)	251명 (47.1%)	
위험군 (2인 SD)	일반인	6명 (1.1%)	0명	3명 (0.6%)	170명 (32.0%)	20명 (7.8%)	0명	1명 (0.4%)	197명 (76.7%)	11명 (4.0%)	2명 (0.7%)	5명 (0.9%)	130명 (47.3%)
	제소자	4명 (0.8%)	1명 (0.2%)	3명 (0.6%)	225명 (42.3%)	11명 (4.3%)	1명 (0.4%)	4명 (0.7%)	234명 (91.1%)	3명 (1.1%)	0명	7명 (1.3%)	213명 (77.5%)
	소계	42명 (12.4%)	49명 (12.5%)	29명 (3.0%)	370명 (69.5%)	20명 (10.3%)	33명 (8.8%)	11명 (2.0%)	412명 (77.4%)	43명 (17.1%)	78명 (24.8%)	40명 (3.9%)	251명 (47.1%)
경향군 (1인 SD)	일반인	30명 (5.6%)	37명 (7.0%)	11명 (2.0%)	170명 (32.0%)	12명 (4.7%)	21명 (8.2%)	6명 (2.3%)	197명 (76.7%)	30명 (10.9%)	63명 (22.9%)	16명 (3.0%)	130명 (47.3%)
	제소자	12명 (2.3%)	12명 (2.3%)	18명 (3.3%)	225명 (42.3%)	8명 (3.1%)	12명 (4.7%)	5명 (0.9%)	234명 (91.1%)	13명 (4.7%)	15명 (5.5%)	24명 (4.5%)	213명 (77.5%)
	소계	52명 (13.7%)	50명 (13.3%)	35명 (3.4%)	370명 (69.5%)	51명 (11.3%)	34명 (8.8%)	16명 (2.4%)	431명 (77.4%)	57명 (19.9%)	80명 (26.9%)	52명 (6.0%)	343명 (47.2%)
총인원	532명 (100%)				532명 (100%)				532명 (100%)				
합계	532명 (100%)				532명 (100%)				532명 (100%)				

일반인 기준 점수(30문항)



〈그림 18〉 K-AIQ 단축형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

라. 추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군을 분노/충동을 방어하지 않은 형태로 성실히 응답하였다고 판단한 “분노/충동 범죄형”과, 방어하는 형태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한 “분노/충동 억제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분류된 대상군 중 “분노/충동 억제형” 집단에게 방어 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 교도소 재소자 88명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 분석에 사용한 기준에 따라 “분노/충동 범죄형”은 36명, “분노/충동 억제형”은 48명이 분류되었다. 분석에는 부산 교도소 재소자가 한국판 분노/충동 판별 척도와 함께 응답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의 L척도, K척도를 이용하여 대상군이 본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였는지 여부와, 군집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1) 대상군의 방어경향 확인 결과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는 성격 특성과 정신병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566문항의 자기 보고식 심리검사로, 10개의 임상 척도와 3개의 타당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군의 방어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도 척도인 L척도 9문항과 K척도 1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척도와 K척도의 문항 총점을 구한 뒤, 등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그 값으로 치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L척도와 K척도를 독립변인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L척도와 K척도 모두 두 집단(분노/충동 범죄형, 분노/충동 억제형)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80)=-4.77$, $t(82)=-4.32$, $p<.001$. 본 연구에서 분류한 대로, “분노/충동 억제형” 집단이 “분노/충동 범죄형” 집단 보다 더 높은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2).

〈표 22〉 대상군 분류에 따른 척도 별 평균(표준편차) 차이 비교

	분노/충동 범죄형 (n=36)	분노/충동 억제형 (n=48)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L척도	.839(.620)	1.45(.657)	-4.771
K척도	1.52(.623)	2.12(.514)	-4.322

* $p<.01$, ** $p<.001$

2) 대상군의 사회적 바람직성 확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자기 보고식 검사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 혹은 자신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는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반응 왜곡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대상군의 경우 현재 교도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검사를 실시한 바, 일반인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군의 사회적 바람직성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라가 2007년도에 국내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기-기만적 고양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인상관리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총점과 두 하위요인 (자기-기만적 고양, 인상관리)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총점과 인상관리 척도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86)=-2.205$, $t(86)=-3.209$, $p<.05$. 본 연구에서 분류한 대로, “분노/충동 억제형” 집단이 “분노/충동 범죄형” 집단 보다 더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인상관리를 위해 응답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3).

〈표 23〉 대상군 분류에 따른 척도 별 평균(표준편차) 차이 비교

	분노/충동 범죄형 (n=36)	분노/충동 억제형 (n=48)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점	66.57(10.31)	72.25(13.27)	-2.205*
인상관리	31.67(5.58)	36.66(8.41)	-3.209*
자기기만적고양	34.90(6.61)	35.58(8.02)	-.430

* $p<.05$, ** $p<.001$

제4절 한국판 분노/충동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 제안

1. 한국판 분노/충동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분노/충동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축소된 K-AIQ의 문항 특성에 더해, 실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및 분노충동범죄 사례 등의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분노/충동 범죄를 예방 및 대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로 구성된 간편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분노/충동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았고, 범죄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낸 연구 역시 부족하다. 다양한 충동성 및 분노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들을 사용하여 분노/충동 범죄를 연구하고 있으나, 주로 임상적 목적을 위주로 개발된 각 척도들이 가진 특성 때문에,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Coccaro, 2009; Linden, 2002; Barratt, Patton, 1993; Bernstein et al., 1997; Whiteside, 1994; Buss & Perry, 1992; Salovey, 1995; 서수균, 권석만, 2005). 또한 이러한 척도들은 일선 경찰들이 ‘분노 및 충동 범죄’라고 여기는 행동적 특성들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분노 및 충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특성상 응답자가 자신의 반응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다는 것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응답자가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 및 일선 담당자가 분노/충동 범죄 대상자를 직접 체크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정신 장애로 인한 범죄를 구분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고, 이를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Sinha, 2009).

2. 체크리스트 문항 선별 예비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항목들이 유의한지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향 체크리스트를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산교도소 남성 재소자 9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충

동 범죄자를 살인, 폭력, 성폭행, 강간과 같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죄명을 가진 이들로 구성하였고, 기타 집단은 사기, 공갈, 마약과 같은 죄명을 가진 이들로 분류하였다.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은 본 연구에서 파악한 문헌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문헌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및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성인기 타인에 대한 분노, 높은 수준의 각성, 공포, 정서 조절과 관련된 어려움을 보고 하였으며 (Mauchan & Cicchetti, 2002; Rathert et al., 2011; Shields & Cicchetti, 1998),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분노 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주, 조규판, 2010). 개인영역에서는 알코올 여부, 과거 유죄판결, 계획여부, 정신장애와 같은 요소들이 범죄적 위험성으로 평가되고 있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등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본정보(가족의 구조, 건강상태, 현재 정서상태), 과거력(가정영역, 정서영역), 개인영역(알코올 중독여부, 과거 유죄 판결, 계획여부 등), 정신영역(환청, 환각, 지리멸렬한 사고), 대인관계(갈등관계 및 불화)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성향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어떤 항목에서 분노/충동 범죄자들과 기타 집단 범죄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노/충동 범죄자 집단과 기타 집단 간의 세부 항목별 체크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분노/충동 범죄자 집단이 기타 범죄자 집단보다 신체 및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61%>35%), 아동기에 충격적 사건을 당한 경험(31%>17%),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경험(65%>52%), 사건 당시 음주 여부(43%>6%)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다는 욕구(62%>27%)와 충동적으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 경험(81%>53%)이 면식 폭력범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14). 따라서 분노/충동 범죄를 일으킬 만한 요소로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릴 적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 아동기 충격적 사건을 당한 경험, 감정조절이 어려워 폭발했던 경험, 충동적으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 경험, 사건 당시 음주 여부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면식 폭력범보다 비면식 폭력범이 과거 유죄 및 지구대 혹은 경찰서 입건 경험이 많았다(80%>52%). 면식 폭력이 음주 및 충동성 항목에서 영향을 받는다면(각각 43%, 81%), 비면식 폭력은 어릴 적 심리적 학대 및 가족 중 전과자(각각 40%, 20%)와 같은 심리적 외상 및 유전적 요인이 다른 범죄에 비해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 개발 관련 탐색을 통해 분노/충동 범죄 집단과 기타 범죄 집단, 그리고 분노/충동범죄 집단 중에서도 면식 폭력집단과 비면식 폭력집단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요소들이 분노충동 범죄자를 선별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구체적인 개발을 통해 세부적인 유형 분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 24〉 분노충동범죄와 기타 집단 간 응답 비율비교

	분노충동 범죄				그 외 범죄
	면식/폭력 범죄 (21건)	비면식/ 폭력범죄 (15건)	성범죄 (13건)	면식,비면식 /성범죄 (49건)	사기, 공갈, 절도, 마약 (48건)
가정불화	76% (16/21)	40% (6/15)	69% (9/13)	63% (31/49)	52% (25/48)
신체 및 언어적 폭력 경험	67% (14/21)	53% (8/15)	62% (8/13)	61% (30/49)	35% (17/48)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학대	19% (4/21)	40% (6/15)	23% (3/13)	27% (13/49)	21% (10/48)
보호자의 애정 및 관심 정도	33% (7/21)	47% (7/15)	46% (6/13)	43% (21/49)	38% (18/48)
가족 중 전과자	5% (1/21)	20% (3/15)	8% (1/13)	10% (5/49)	13% (6/48)
아동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경험	29% (6/21)	40% (6/15)	23% (3/13)	31% (15/49)	17% (8/48)
감정 조절이 어려워 순간적으로 폭발했던 경험	71% (15/21)	53% (8/15)	69% (9/13)	65% (32/49)	52% (25/48)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다는 욕구	62% (13/21)	27% (4/15)	46% (6/13)	51% (24/47)	46% (22/48)
충동적으로 후회할 행동을 한 경험	81% (17/21)	53% (8/15)	69% (9/13)	72% (34/47)	58% (28/48)
사건 당시 음주	43% (9/21)	27% (4/15)	62% (8/13)	43% (21/49)	6% (3/48)
사건 당시 약물	10% (2/21)	7% (1/15)	15% (2/13)	10% (5/49)	23% (11/48)
과거 유죄 경험	38% (8/21)	67% (10/15)	62% (8/13)	53% (26/49)	79% (38/48)
지구대 혹은 경찰서 입건 경험	52% (11/21)	80% (12/15)	85% (11/13)	69% (34/49)	81% (39/48)

3. 향후 연구 제안

향후 체크리스트 개발과 관련하여, 앞서 탐색해 본 유형들과 더불어 축소된 K-AIQ 40문항 3요인에 대해 범죄 심리 관련 교수와 프로파일러의 자문을 얻어,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문항의 속성을 분석하여 체크리스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노/충동 범죄에 관한 실제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분노/충동 범죄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확인한 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간단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이를 현장에 있는 경찰들의 실제 사용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경찰서 및 지구대와 같은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노/충동 범죄의 특성을 보이는 대상에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유형을 분노, 충동, 분노/충동형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분노/충동 범죄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분노/충동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대처가 가능하며, 나아가 분노/충동 범죄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정 장면에서 분노/충동 범죄 수감자의 각 유형에 맞는 교정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 및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연구기간 및 추진일정



〈그림 19〉 전체 연구 추진일정

제6장 참여연구원 현황

성명	연구 분야	소속
이장한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기은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최하나	연구보조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김리안	연구보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이호동	연구보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참고 문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임근석, 심리학 개론, 형설출판사, 1991

이현수, 충동성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1992.

이현수,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 및 해석을 위한 지침서, 학지사 부설 학지 심리 검사 연구소, 2004.

2. 논문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통권 제11-4호, 2012.

곽금주,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통권 제6-1호, 1993.

김교현,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통권 제5-2호, 2000.

김명숙, “아동의 공격행동에 따른 결과예상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통권 제10-2호, 1989.

김완석, “효율적인 인지욕구 측정: 단축형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통권 제9-1호, 2007.

김진주·조규관, “대학상담: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귀인성향이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통권 제11-2호, 2010.

김진혁,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 범죄심리 연구, 통권 제18호, 2012.

박지선·최낙범,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통권 제4-3호, 2013.

박현수·김도우·이재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통권 제7-3호, 2010.

서수균·권석만, “분노사고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통권 제24-1호, 2005.

- 윤정숙 · 박지선 · 안성훈 · 김민정.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 이경희,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 이근배 · 조현춘, “반추초점과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통권 제30-2호, 2011.
- 이성식, “가정과 청소년 비행: 주요 이론들의 매개과정을 통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2003.
- 이수정 · 이훈구, “Trait Meta-Mood Scale 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통권 제 11-1호, 1997.
- 이수정 · 이현성 · 이정현,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하위유형 연구”, 보호관찰, 통권 제13-2호, 2013
- 이은희 · 공수자 · 이정숙,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통권 제16-1호, 2004.
- 임선영 · 이영호,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UPPS-P) 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통권 제33-1호, 2014.
- 전현숙 · 손정락, “역기능적 분노표현 및 비합리 적 신념과 마음챙김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통권 제30-2호, 2011.
- 정연대 · 이운호, “묻지마 범죄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묻지마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접근”, 한국경찰연구, 통권 제12-1호, 2013.
- 조현춘 · 이근배, “한국판 분노행동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통권 제19-2호, 2007.
- 최인숙, “고의성이 모호한 욕구좌절하에서 아동의 공격행동과 공격지연행동”, 유아 교육연구, 통권 제10호, 1990.
- 한상욱 · 강석기,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적대감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36권, 2002.

II. 국외문헌

1. 단행본

- Aronson, E., *The Social Animal* (3rd Edition), New York: Freeman, 1980.
- Bandura, A. · Walters, R. H. ,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ynehart and Winston, 1963.
- Baron, R. A. · Richardson, D. R., *Human Aggression*. New York: Plenum. 2nd ed, 1994.
- Barefoot, J. C., *Development in the Measurement of Hostility*, Friedman, H. S. (Ed.), *Hostility, coping, & health*, Washington D.C.: APA, 1992.
- Barratt, E. S. · Patton, J. H.,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Zuckerman, M. (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 Inc, 1983.
- Barratt, E. S.,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Monahan, J. · Steadman, H. J. (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Beck, A. T.,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2000.
- Buss, A. H.,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1961.
- Buss, A. H. · Plomin, R. ,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75.
- Coccaro, E. F. · Siever, L. J. ,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of Aggression*, Charney, D. · Davis, K. L. · Coyle, J. T. , (Eds.), *Neuropsychopharmacology: The 5th Generation of Progress*, Philadelphia, PA: Williams and Wilkins, 2002.
- Curtis, L. A., *Violence, Race, and Cultur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75.
- Deffenbacher, J. L. · McKay, M.,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A Protocol For the Treatment of Anger Based on Relaxation, Cognitive Restructuring, and Coping Skills Training*.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00.

- DiGiuseppe, R., Developing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angry clients, Kassinove, H. (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1995.
- DiGiuseppe, R. · Tafrate, R. C. , *Understanding Anger Disord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Dollard, J. · Miller, N. E. · Doob, L. W. · Mowrer, O. H. · Sears, R. P.,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9.
- Eysenck, H. J., *The Nature of Impulsivity*, McCown, W. G. · Johnson, J. L. · Shure, M. B. (Eds.), *The Impulsive Cli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3.
- Frost, W. D. · Averill, J. R.,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Anger, Anger and Aggression*, New York: Springer, 1982.
- Geen, R. G., *Human Aggression*, Donnerstein, E. D. (Ed.),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90.
- Gray, J. A., *A Model of the Limbic System and Basal Ganglia: Applicationsto Anxiety and Schizophrenia*, Gazzaniga, M. S. (Ed.), *The Cognitive Neurosciences*, Cambridge: MIT Press, 1995.
- Harriman, P. L., *The New Dictionary of Psycholog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47.
- Hinslie, L. · Shatzky, J., *Psychiatric Dictiona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Anger Disorders: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Kassinove, H.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Washington D. C. : Taylor & Francis, 1995.
- Morey, L. C.,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Adolescent (PAI-A)*,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2007.
- Porteus, S. D., *The Maze Test and Clinical Psychology*, Oxford: Pacific Books, 1959.
- Rachlin, H., *The Science of Self Contro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Salovey, P. · Mayer, J. D. · Goldman, S. L. · , Turvey, C. · Palfai, T. P.,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ennebaker, J. W.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 C.: APA, 1995.
- Smith, L., A Dictionary of Psychiatry for the Layman, London: Maxwell, 1952.
- Sinha, M., An investigation into the feasibility of collecting data on the involvement of adults and youth with mental health issu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ttawa, Ontario: Statistics Canada, 2009.
- Spielberger, C. D. · Johnson, E. H. · Russell, S. · Crane, R. S. · Jacobs, G. A. · Worden, T. J.,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Chesney, M. A. · Rosenman, R. H.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New York: Hemisphere, 1985.
- Tellegen, A., Brief Manual for the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1982.
- Wolfgang, M. E. · Ferracuti, F. · Mannheim, H., 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in Crimin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67.

2. 논문

- Anderson, C. A. · Bushman, B. J.,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Volume 53, 2002.
- Antonius, D. · Justin Sinclair, S. · Shiva, A. A. · Messinger, J. W. · Maile, J. · Siefert, C. J. · Blais, M. A., “Assessing the heterogeneity of aggressive behavior trait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analyses of the reactive and instrumental aggression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scales”, Violence and Victims Volume 28 Issue 4, 2013.
- Averill, J. R.,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ume 38, 1983.
-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ume 84 Issue 22, 1977.
- Barefoot, J. C. · Dahlstrom, G. W. · Williams Jr. R. B., “Hostility, CHD incidence, and total mortality: A 25-years follow-up study of 255 physicians”, Psychosomatic Medicine Volume 45 Issue 1, 1983.
- Barratt, E. S.,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ume 9 Issue 3, 1959.
- Barratt, E. S., “Measuring and predicting aggression within the context of a personality theory”, The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Volume 3 Issue 2, 1991.
- Barratt, E. S. · Stanford, M. S. · Kent, T. A. · Alan, F., “Neuropsychological and cognitive psychophysiological substrates of impulsive aggression”, Biological Psychiatry Volume 41 Issue10, 1997.
- Berkowitz, L.,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Volume 81, 1974.
- Berkowitz, L.,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ume 106 Issue 1, 1989.
- Berkowitz L., “Pain and aggression: some findings and implic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Volume 17 Issue3, 1993.
- Bernstein, D. P. · Ahluvalia, T. · Pogge, D. · Handelsman, L., “Validity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in an adolescent psychiatric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ume 36 Issue 3, 1997.
- Blair, R. J. R., “Neurocognitive models of aggression, th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Volume 71 Issue 6, 2001.

- Bushman, B. J. · DeWall, C. N. · Pond, R. S. · Hanus, M. D., “Low glucose relates to greater aggression in married coupl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ume 111 Issue 17, 2014.
- Bushman, B. J. · Anderson, C. A., “Is it time to pull the plug on the hostile versus instrumental aggression dichotomy?”, Psychological Review Volume 108, 2001.
- Bushman, B. J. · DeWall, C. N. · Pond, R. S. · Hanus, M. D., “Low glucose relates to greater aggression in married coupl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ume 111 Issue17, 2014.
- Buss, A. H. · Perry, M.,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ume 63 Issue 3, 1992.
- Calvete, E. · Orue, I. , “Cognitive schemas and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olume 13 Issue 1, 2010.
- Coccaro, E. F. · Noblett, K. L. · McCloskey, M. S., “Attributional and emotional responses to socially ambiguous cues: Validation of a new assessment of social/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healthy adults and impulsive aggressive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ume 43 Issue 10, 2009.
- Cornell, D. G. · Warren, J. · Hawk, G. · Stafford, E. · Oram, G. · Pine, D., “Psychopathy in instrumental and reactive violent offen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ume 64 Issue4, 1996.
- Cyders, M. A. · Smith, G. T., “Mood-based rash action and its components: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ume 43 Issue 4, 2007.
- Dahlen, E. R. · Martin, R. C.,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 perceive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ume 39 Issue 2, 2005.
- Deffenbacher, J. L. · McKay, M.,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A protocol for the treatment of anger based on relaxation, cognitive restructuring, and coping skills training*,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00.
- Dodge, K. A. · Coie, J. D. ,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ume 53 Issue 6, 1987.
- Dodge, K. A. · Price, J. M. · Bachorowski, J. · & Newman, J. P.,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in severely aggressiv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ity Psychology* Volume 99 Issue 4, 1990.
- Dodge, K. A.,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ume 44 Issue5, 1993.
- Dodge, K. A. · Lochman, J. E. · Harnish, J. D. · Bates, J. E. · Pettit, G. 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and psychiatrically impaired chronically assaultive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ume 106 Issue 1, 1997.
- Dofman, H. M. · Meyer-Linderberg, A. · Buckholtz, J. W., “Neurobiological Mechanisms for Impulsive-Aggression: The role of MAOA”, *Neuroscience of Aggression* Volume 17, 2014.
- Domes, G. · Mense, J. · Vohs, K. · Habermeyer, E., “Offenders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how attentional bias for violence-related stimuli”, *Psychiatry Research* Volume 209 Issue 1, 2013.
- Eron, L. D. , “Prescription for reduction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Volume 35 Issue 3, 1980.
- Eysenck, S. B. · Eysenck, H. J. , “The place of impulsiveness in a dimensional system of personality descri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 Psychology Volume 16 Issue 1, 1977.
- Eysenck, S. B. · Eysenck, H. J., “Impulsiveness and venturesomeness: Their position in a dimensional system of personality descrip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ume 43 Issue 3f, 1978.
- Ford, J. D. · Fraleigh, L. A. · Connor, D. F., “Child abuse and aggression among seriously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ume 39 Issue 1, 2009.
- Furlong, M. J. · Smith, D. C., “Raging Rick to Tranquil Tom: An empirically based multidimensional anger typology for adolescent male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ume 35 Issue 3, 1998.
- Gambone, G. C. · Contrada, R. J., “Patterns of self-and other-representation in trait hostili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ume 21 Issue 5, 2002.
- Grann, M. · Wedin, I., “Risk factors for recidivism among spousal assault and spousal homicide offenders”, Psychology, Crime and Law Volume 8 Issue 1, 2002.
- Hecht, L. K. · Latzman, R. D., “Revealing the nuanced associations between facets of trait impulsivity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ume 83, 2015.
- Hirono, N. · Mega, M. S. · Dinov, I. D. · Mishkin, F. · Cummings, J. L., “Left frontotemporal hypoperfusion is associated with aggress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Archives of Neurology Volume 57 Issue 6, 2000.
- Hoaken, P. N. · Shaughnessy, V. K. · Pihl, R. O., “Executive cognitive functioning and aggression: Is it an issue of impulsivity?”, Aggressive Behavior Volume 29 Issue 1, 2003.
- Huesmann, L. R.,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Volume 14, 1988.
- Huesmann, L. R. · Guerra, N. G.,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ume 72 Issue 2, 1997.
- Johnson, R. M. · Kotch, J. B. · Catellier, D. J. · Winsor, J. R. · Dufort, V. · Hunter, W. · Amaya-Jackson, L., “Adverse behavioral and emotional outcomes from child abuse and witnessed violence”, *Child Maltreatment* Volume 7 Issue 3, 2002.
- Kagan, J. · Rosman, B. L. · Day, D. · Albert, J. · Phillips, W.,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child: Significance of analytic and reflective attitudes”,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Volume 78 Issue 1, 1964.
- Keil, V. · Price, J. M.,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of maltreated children in two social domai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ume 30 Issue 1, 2009.
- King, S. M., “Escape-related behaviors in an unstable, elevated and exposed environment: II. Long-term sensitization after repetitive electrical stimulation of the rodent midbrain defence system”, *Behavioral Brain Research* Volume 98 Issue 1, 1998.
- Kret, M. E. · de Gelder, B., “When a smile becomes a fist: The perception of facial and bodily expressions of emotion in violent offender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Volume 228 Issue 4, 2013.
- Lemerise, E. A. · Arsenio, W. F.,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Volume 71 Issue 1, 2000.
- Lake, S. L. · Stanford, M. S. · Patton, J. H. (2014)., “Emotional processing and frontal asymmetry in impulsive aggressive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ume 70, 2014.
- Lazarus, R. S.,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ume 46 Issue 8, 1991.
- LeMarquand, D. G. · Pihl, R. O. · Young, S. N. · Tremblay, R. E. · Séguin, J.

- R. · Palmour, R. M. · Benkelfat, C., "Tryptophan depletion, executive functions, and disinhibition in aggressive, adolescent males", *Neuropsychopharmacology* Volume 19 Issue 4, 1998.
- Linden, W. · Hogan, B. E. · Rutledge, T. · Chawla, A. · Lenz, J. W. · Leung, D., "There is more to anger coping than "in" or "out"", *Emotion* Volume 3 Issue 1, 2003.
- MacCoby, E. E. · Dowley, E. M. · Hagen, J. W. · Degerman, R., "Activity level and intellectual functioning in normal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ume 36 Issue 3, 1965.
- Maschi, T., "Trauma and violent delinquent behavior among male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Stress, Trauma, and Crisis* Volume 9 Issue 1, 2006.
- McCann, J. T. · Biaggio, M. K.,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Volume 64 Issue 1, 1989.
- Meltzer, H. Y., · Arora, R. C., "Genetic control of serotonin uptake in blood platelets: a twin study", *Psychiatry Research* Volume 24 Issue 3, 1988.
- Messner, S. F., "Merton's 'Social Structure and Anomie': The Road Not Taken", *Deviant Behavior* Volume 9, 1988.
- Moeller, F. G. · Dougherty, D. M. · Barratt, E. S. · Schmitz, J. M. · Swann, A. C. · Grabowski, J., "The impact of impulsivity on cocaine use and retention in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ume 21 Issue 4, 2001.
- Morgan, A. B. · Lilienfeld, S. O.,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lation between antisocial behavior and neuropsychological measures of executive fun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ume 20 Issue 1, 2000.
- Morris, A. S. · Silk, J. S. · Steinberg, L. · Myers, S. S. · Robinson, L. R.,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Volume 16 Issue 2, 2007.
- New, A. S. · Hazlett, E. A. · Buchsbaum, M. S. · Goodman, M. · Reynolds, D. · Mitropoulou,

- V. · Siever, L. J., “Blunted prefrontal cortical 18 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response to meta-chlorophenylpiperazine in impulsive agg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ume 59 Issue 7, 2002.
- Patton, J.H. · Stanford, M.S. · Barratt, E.S.,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ume 51, 1995.
- Patrick, C. J.,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aggression and violence: an integrative review”,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Volume 363 Issue 1503, 2008.
- Perach-Barzilay, N. · Tauber, A. · Klein, E. · Chistyakov, A. · Ne’eman, R. · Shamay-Tsoory, S. G., “Asymmetry in the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and aggressive behavior: a continuous theta-burst magnetic stimulation study”, *Social Neuroscience* Volume 8 Issue 2, 2013.
- Rathert, J. · Fite, P. J · Gaertner, A. E., “Associations between effortful contro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Volume 42 Issue 5, 2011.
- Salovey, P. ·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ume 9 Issue 3, 1990.
- Shields, A. · Cicchetti, D.,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ume 27 Issue 4, 1998.
- Smith, T. W. , “Hostility and health: Current status of a psychosomatic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Volume 11 Issue 3, 1992.
- Speilberger, C. D. · Jacobs, G. · Russell, S. · Crane, R. S.,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ume 2, 1983.
- Spielberger, C. D., “Assessment of state and trait anxiety: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Southern Psychologist* Volume 2 Issue 4, 1985.

- Spielberger, C. D. · Reheiser, E. C. · Sydman, S. M. ,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Volume 18 Issue 3, 1995.
- Stanford, M. S. · Houston, R. J. · Mathias, C. W. · Vilemarette-Pittman, N. R. · Helfritz, L. E. · Conklin, S. M., “Characterizing aggressive behavior”, *Assessment* Volume 10 Issue 2, 2003.
- Swanson, J. W. · Swartz, M. S. · Van Dorn, R. A. · Volavka, J. · Monahan, J. · Stroup, T. S. · Lieberman, J. A., “Comparison of antipsychotic medication effects on reducing violence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ume 193 Issue 1, 2008.
- Tafate, R. C., Kassinove, H. · Dundin, L., “Anger Episodes in high-and low-trait-anger community adul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ume 58, 2002.
- Tamara, D. V. · K. Daniel O., “Effectiveness of anger treatments for specific anger problem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ume 24 Issue 1, 2004.
- Thornburg, H. D. , *Development in Adolescence* (2nd ed.), Monterey: Brooks/Cole Publishing Co, 1982.
- Teisl, M. · Cicchetti, D., “Physical abuse,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an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problems”, *Social Development* Volume 17 Issue 1, 2008.
- Vigil-Colet, A. · Codorniu-Raga, M. J., “Aggression and inhibition deficits, the role of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ume 37 Issue 7, 2004.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ume 43 Issue 4.
- Walters, G. D. · Frederick, A. A. · Schlauch, C., “Postdicting arrests for proactive

- and reactive aggression with the PICTS Proactive and Reactive Composite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ume 22, 2007.
- Weinshenker, N. J. · Siegel, A., “Bimodal classification of aggression: Affective defense and predatory attack”,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ume 7 Issue 3, 2002.
- Whiteside, S. P. · Lynam, D. R.,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ume 30 Issue 4, 2001.
- Yzerbyt, V. · Dumont, M. · Wigboldus, D. · Gordijn, E., “I feel for us: The impact of categorization and identification on emotions and action tendenc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ume 42 Issue 4, 2003.

부 록

1. K-AIQ(Korea-Anger Impulsivity Questionnaire, 90문항)

※ 아래 제시되는 짧은 이야기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에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V' 표시를 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야기 1]

당신이 현재 태권도장에서 시합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부님에게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같은 수업의 잘 알지 못하는 상대와 “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평가 받는 중일 때, 상대방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했고, 그 결과 당신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당신의 대결 상대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합니까?				
A1. 신체적으로 나를 다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시합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3. 실수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4.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좋지 않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2]

바쁜 출근 시간인 이른 아침, 당신은 커피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붐비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 자주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이 사람이 당신 앞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A1. 나를 더 오래 기다리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회사에 가야 해서 급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3. 내 앞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4. 나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3]

당신은 친구 중 한 명과 짧은 주말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당신은 매우 신이 나 있고, 빨리 여행을 떠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행 전날, 친구가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사실은 다른 친구와 주말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당신의 친구가 왜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A1.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다른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3. 우리의 계획에 대해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4.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4]

당신은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한 후에야 사람이 너무 많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의 직장 동료 한 명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같이 점심을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당신의 직장 동료가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합니까?				
A1. 나를 거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그 시간에 혼자 있길 원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3.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내가합석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4.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5]

당신이 평소 가입하고 싶었던 동호회의 첫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몇 사람을 향해 걸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동호회 회원들이 당신의 인사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A1. 나를 무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3. 내 인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4. 나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6]

당신이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난 직후, 당신의 직장 동료가 당신의 차 오른쪽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 동료가 차에서 내릴 때, 그의 차 문이 당신의 조수석 쪽 문을 치게 되었고 차가 굽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차에서 내리려 할 때, 그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직장 동료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까?				
A1. 나의 차에 흠집을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서둘러 회사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3. 실수로 흠집을 냈는데, 그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4. 나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다음 문항들을 잘 읽어보고, 평소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빈정거리거나 흠을 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화나는 상황에서, 주먹을 움켜쥐거나 샷대질을 하는 등 강력한 몸짓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악담을 퍼붓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밀치거나 친다.	①	②	③	④	⑤
5. 문을 쾅 닫거나 책상을 치거나 하여 분노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화나는 상황에서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했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화나는 사건에 대한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화나는 사건은 오래 동안 나를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10. 마음속으로 화나는 사건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최근 몇 주 동안 화가 났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장을 읽고 아래와 같이 그 빈도에 따라 적당한 숫자에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한 대 패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잘못을 하고도 사과도 안 하다니, 너무 기가 막힌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뭘 안 해줬나?	①	②	③	④	⑤
5. 나쁜 놈!	①	②	③	④	⑤
6. 따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이 사람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자.	①	②	③	④	⑤
8. 저 사람이 치면 나도 그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이걸 그냥 확 없애버려.	①	②	③	④	⑤
10. 앞으로 이 사람에게는 말대꾸도 안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①	②	③	④	⑤
11. 혼 내줘야겠구먼.	①	②	③	④	⑤
12. 이 자식을 죽여 버려!	①	②	③	④	⑤
13. 재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앞으로 이 사람을 무시해줘야지.	①	②	③	④	⑤
16. 인간쓰레기처럼 보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실체를 다 알릴까 보다.	①	②	③	④	⑤
17.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①	②	③	④	⑤
18. 욕을 퍼붓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앞으로 잘 해주지 말자.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질문지의 문항을 잘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 의 하 지 않 는 다	어 느 정 도 동 의 한 다	매우 동 의 한 다
1. 나는 내 충동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아주 좋을 때면, 나중에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버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음식이나 담배 등에 대한) 욕구를 잘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말려드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가끔 나중에 벗어나기를 바라는 일에 개입되곤 한다.	①	②	③	④
6.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나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종종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기분이 필장히 좋아지면 통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9. 가끔 기분이 나쁠 때, 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지는 행동을 하면서도 잘 멈추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0. 녀을 입을 만큼 기분이 좋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기분이 상하면 종종 생각 없이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필장히 기분이 좋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가끔 한다.	①	②	③	④
14. 내가 매우 흥분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나 걱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15. 감정에 따라 행동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16. 뭔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나중에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기분이 상했을 때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가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18. 기뻐서 들었을 때, 내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정말로 흥분하게 되면 나는 내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20.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21. 내가 정말 흥분하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늘 내 기분을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23. 기분이 아주 좋을 때, 평소 같으면 편안하게 느낄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24.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욕구에 굴복해서 멋대로 행동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5. 가끔 나는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충동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26.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에 놀라곤 한다.	①	②	③	④

2. K-AIQ(Korea-Anger Impulsivity Questionnaire, 30문항)

※ 아래 제시되는 짧은 이야기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에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V' 표시를 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야기 1]

당신이 현재 태권도장에서 시합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부님에게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같은 수업의 잘 알지 못하는 상대와 “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평가 받는 중일 때, 상대방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했고, 그 결과 당신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당신의 대결 상대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합니까?				
A1. 신체적으로 나를 다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좋지 않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2]

바쁜 출근 시간인 이른 아침, 당신은 커피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붐비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 자주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이 사람이 당신 앞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A1. 나를 더 오래 기다리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나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3]

당신은 친구 중 한 명과 짧은 주말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당신은 매우 신이 나 있고, 빨리 여행을 떠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행 전날, 친구가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사실은 다른 친구와 주말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당신의 친구가 왜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A1.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4]

당신은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한 후에야 사람이 너무 많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의 직장 동료 한 명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같이 점심을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당신의 직장 동료가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합니까?				
A1. 나를 거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이야기 5]

당신이 평소 가입하고 싶었던 동호회의 첫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몇 사람을 향해 걸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왜 동호회 회원들이 당신의 인사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A1. 나를 무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A2. 나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B.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C. 이 일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 다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최근 몇 주 동안 화가 났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장을 읽고 아래와 같이 그 빈도에 따라 적당한 숫자에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한 대 패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해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사람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자.	①	②	③	④	⑤
4. 저 사람이 치면 나도 그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미겔 그냥 확 옆어버려.	①	②	③	④	⑤
6. 혼 내줘야겠구먼.	①	②	③	④	⑤
7. 이 자식을 죽여 버려!	①	②	③	④	⑤
8.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인간쓰레기처럼 보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실체를 다 알릴까 보다.	①	②	③	④	⑤
10. 욕을 퍼붓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질문지의 문항을 잘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 의 하 지 않 는 다	어 느 정 도 동 의 하 는 다	매우 동 의 하 는 다
1.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나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 통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낯을 잃을 만큼 기분이 좋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감정에 따라 행동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5. 뭔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는 나중에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기분이 상했을 때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가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7. 기뻐서 들떴을 때, 내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정말로 흥분하게 되면 나는 내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정말 흥분하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욕구에 굴복해서 멋대로 행동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3. 한국판 분노/충동 선별 체크리스트 예비 문항

기 본 정 보		2. 정서 영역	
1. 가족의 구조		1) 감정 조절이 어려워 순간적으로 폭발했던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부모 이혼, 별거 혹은 가출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2)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독거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3)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2. 건강상태		개 인 영 역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1) 사건 당시 음주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머리 수술 및 부상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2) 사건 당시 약물사용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심장 및 혈관 관련 질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3)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 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3. 현재 정서상태		5) 평소 무기를 휴대함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1) 잦은 우울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6) 과거 유죄 판결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2) 불안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7) 범행 당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3) 만성적 분노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8) 지구대 혹은 경찰서 입건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4) 순간적 분노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11) 피해자와 아는 사이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정 신 영 역	
		1) 헛것이 보이거나 들림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2) 나만의 특이한 신념 예)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과 거 력		대 인 관 계	
1. 가정 영역		1) 현재 겪고 있는 갈등관계 (있다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1) 가족 간 가정불화	<input type="checkbox"/>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2) 배우자 및 연인 간 불화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2) 신체 및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3) 문제발생 시 의지할 수 있는 상대 (있다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3) 가족으로 부터 심리적 학대를 당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4) 보호자의 애정 및 관심정도	<input type="checkbox"/> 충분함 <input type="checkbox"/> 부족함		
5) 가족 중 전과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6) 아동기에 충격적 사건을 당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